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41호【루계 제24389호】주체102(2013)년 12월 7일(토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령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
으로 높이 받들어모시자!

주체건축의 휘황한 진로를 밝혀주며 창조와 건설의 새 력사를 안아온 불멸의 사상리론업적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주체적이며 인민적인 건축에 관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수많이 발표하시였다

주체의 건축사에 특기할 건설부문 일군대강습을 앞두고 전체 군대와 인민은 이 땅우에 건설의 위대한 새 력사를 펼쳐주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기고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는 류례없이 간고하고 거창한 조국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주체적이며 인민적인 건축사상과 리론을 집대성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우리 인민에게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기 위한 창조와 건설의 사상리론적무기를 안겨주시였다.

탁월한 사상리론활동으로 주체건축의 휘황한 진로를 밝혀주시고 우리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업적은 오늘 건설의 최전성기를 펼친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진군길에 불멸의 기치로 빛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조국과 혁명, 시대와 력사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걸출한 정치가,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시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통하여 밝혀주신 주체건축발전에 관한 사상리론은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준 백과전서적인 지침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로작들에서 건축창조사업이 자연을 개조하고 변혁하며 민족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보람찬 사업이라는것을 밝히시고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에 맞는 주체적인 건축사상과 기본건설방침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민주주의 새 조선을 우리 손으로 건설하자》**를 비롯한 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선행시대의 온갖 낡고 반인민적인 건축력사에 영원한 종지부를 찍으시고 주체사상이 구현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건축, 주체건축에 관한 사상리론을 천명하시였다.

준엄하였던 조국해방전쟁의 불길속에서 승리한 래일을 확신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고전적로작 **《전후평양시복구건설총계획도를 작성할데 대하여》**를 발표하시여 복구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후복구건설의 어려운 시기에 발표하신 **《강남요업공장건설을 다그치자》**, **《전후복구건설에서 건축가들과 건설기술자들의 임무》**, **《건설사업에서의 혁신을 위하여》**, **《건설분야에서 당정책을 관철할데 대하여》**, **《건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등의 로작들은 사회주의건축창조와 발전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원칙들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명시하였다.

로작들에는 건축에서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구현하고 주체를 튼튼히 세우며 건설의 공업화를 실현하고 부르죠아형식주의건축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데 대한 문제들이 반영되여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건축사상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건설부문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졌으며 14분만에 한 세대의 살림집이 조립되는 평양속도가 창조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의 년대마다에 건축창조에서 제기되는 원칙적문제들을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기본건설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다음해 평양시건설에서 일대 전변을 일으킬데 대하여》**, **《기본건설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몇가지 대책에 대하여》**, **《당면한 평양시건설방향에 대하여》** 등 수많은 고전적로작들은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전투적기치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건축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더욱 빛나게 되였으며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였다.

어버이장군님께서는 주체80(1991)년 5월 21일 주체건축의 개화발전을 확고히 담보하는 백과전서적인 사회주의건축강령인 불후의 고전적로작 **《건축예술론》**을 발표하시였다.

로작에서 건축의 본질과 속성, 사회주의건축, 주체건축의 혁명적본질과 특징에 관한 문제들에 독창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건축예술론》은 우리의 건축을 보다 높은 경지에로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원칙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고 인류건축미학사상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한 고전적문헌인것으로 하여 사회주의건축창조사업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의 수도 평양을 더욱 웅장화려한 인민의 도시로 건설하자》**, **《량강도를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으로 튼튼히 꾸리자》**, **《백두산지구를 잘 꾸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더욱 빛내여나가야 한다》**를 비롯한 로작들에서 혁명적수령관으로 일관된 건축을 창조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시였다.

로작들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들의 형성문제와 보천보, 삼지연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 주체사상탑과 개선문을 비롯하여 수령님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이기 위한 건설대상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과 방도들이 명시되여있다.

혁명적도덕의리의 최고화신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과 탁월한 령도로 주체의 최고성지로 꾸려주신 금수산기념궁전(당시)은 건축학적인 모든 요소들이 철두철미 혁명적수령관으로 일관된 건축창조의 최고정화이다.

《금수산기념궁전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원한 주석궁이며 주체의 최고성지이다》, **《금수산기념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답게 잘 꾸릴데 대하여》**를 비롯한 로작들에는 어버이수령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모시려는 천만군민의 충정을 담아 건축의 모든 대상과 세부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전무결하게 꾸리는데서 나서는 방도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의 사회주의건축이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와 인민들의 미학정서적요구에 맞게 주체적이며 인민적인 참신한 건축으로 되도록 하기 위한 원칙적문제들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평양시를 현대적이며 문화적인 도시로 꾸리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을 통하여 건축에서 온갖 낡고 뒤떨어진것을 없애고 내용과 형식, 창조체계와 방법의 모든 면에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가져올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평양시에 창광거리, 광복거리 등 종전의 거리들과 구별되는 현대적인 거리들과 5월1일경기장을 비롯한 로동당시대의 창조물들이 웅장하게 일떠서 평양번영기가 창조되였다.

독창적인 사상리론활동과 정력적인 령도로 창조와 건설의 전성기를 펼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기본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를 비롯한 로작들을 발표하시여 기본건설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을 마련해주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은 우리 시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지향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건축사상과 리론을 밝혀준것으로 하여 커다란 견인력과 생활력을 가지고 천만군민을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주체건축에 관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위업은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독창적이고 인민적인 건축미학사상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발전풍부화되고있으며 젊음으로 약동하는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 적극 추동하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높이 건설의 최번영기를 펼치며 이 땅우에 기어이 천하제일강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울것이다.

본사기자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념원 빛나는 현실로 꽃펴난다

문수기능회복원 개원식 진행

어머니당의 숭고한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문수기능회복원이 훌륭히 일떠섰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과시하며 종합적인 치료봉사기지로 솟아난 문수기능회복원은 우리 당이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또 하나의 사랑의 선물이다.

현대적인 의료설비들과 신경기능, 심장기능회복치료와 각종 물리치료, 외과치료들을 할수 있는 치료실들과 입원실을 비롯하여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 갖추어진 의료봉사기지가 꾸려짐으로써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게 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현대적인 치료봉사기지로 훌륭히 완공된 문수기능회복원 개원식이 6일에 진행되였다.

개원식에는 박봉주동지, 최태복동지, 양형섭동지, 문경덕동지와 관계부문 일군들, 군인건설자들, 보건부문, 기능회복원일군들, 종업원들, 시내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개원식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최태복동지가 개원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온 나라에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일대 전성기가 펼쳐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문수기능회복원이 개원하게 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인민의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는 문수물놀이장과 나란히 일떠선 문수기능회복원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기능회복치료봉사기관이라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인민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현대적인 기능회복원건설을 몸소 발기하시고 건설전과정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수많은 형성안과 설계안들을 지도하여주시면서 기능회복원건설에 온갖 심혈을 바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건물이 완공되였을 때에는 최상급의 치료설비들로부터 특수한 기능을 갖춘 뻐스에 이르기까지 치료봉사활동에 필요한 설비와 기재들을 일식으로 마련해주시고 관리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떨쳐나선 군인건설자들은 당정책결사관철의 기풍을 발휘하여 불과 다섯달 남짓한 기간에 문수기능회복원을 훌륭히 일떠세우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기능회복원이 건설되여 개원됨으로써 우리 인민들은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을 더욱 뜨겁게 받아안으며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되였다.

진정 인민사랑의 최고화신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값높고 보람찬 삶을 누리는 우리 인민처럼 행복한 인민은 이 세상에 없다.

연설자는 전체 참가자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인민의 천만가지 꿈을 현실로 꽃피워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그는 위대한 당을 따르는 길에 찬란한 래일이 있다는 확신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모두가 당의 령도를 더욱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문수기능회복원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치료봉사시설과 기재들에 정통하고 잘 관리하며 치료봉사활동과 과학연구사업을 개선하여 인민들이 우리 당의 은덕, 사회주의의 덕을 폐부로 느끼며 건강한 몸으로 부강조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게 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기능회복원을 일떠세운 인민군군인들의 투쟁기풍과 일본새를 따라배워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한결같이 떨쳐나 대혁신, 대비약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인민사랑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모두가 당의 령도따라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개원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기능회복원을 돌아보았다.

함흥편직공장현대화공사 완공, 조업식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감사문 전달

함흥편직공장현대화공사가 성과적으로 끝났다.

공장이 현대적으로 꾸려짐으로써 우리 인민에게 질좋은 비날론편직제품들을 안겨주기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바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또 하나의 토대가 마련되였다.

조업식이 6일에 진행되였다.

태종수 함경남도당위원회 책임비서, 전광호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과 함흥편직공장 종업원들, 건설자, 지원자들이 조업식에 참가하였다.

조업식에서는 함흥편직공장현대화공사에서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세운 건설자들과 일군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감사문이 전달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감사문에서 김정일애국주의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헌신적인 투쟁을 벌려 함흥편직공장현대화공사를 성과적으로 끌낸 건설자들과 일군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보낸다고 지적하였다.

감사문은 함남의 불길을 지펴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100(2011)년 12월 9일 함흥편직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공장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질좋은 뜨개옷과 양말을 생산하여 함경남도인민들에게 보내줄데 대한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고 지적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당중앙이 함흥편직공장을 높은 생산능력을 갖춘 공장으로 일신시킬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였으며 공사를 다그쳐 끌내기 위한 혁명적조치를 취해준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당과 수령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무한히 고무된 함흥편직공장 종업원들과 도안의 기판, 기업소들의 돌격대원들, 일군들은 불굴의 정신력을 발휘하여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1년 남짓한 기간에 현대적인 편직공장을 일떠세우는 위훈을 창조하였다고 지적하였다.

함흥산업건설사업소 돌격대원들을 비롯한 건설자들은 당이 안겨준 담력과 배짱으로 부닥치는 난관을 이겨내면서 낡은 설비와 건물해체작업을 짧은 기간에 끌내고 기본생산건물건설과 보조건물대보수를 내밀어 공사를 앞당겨 완공할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제꼈다고 강조하였다.

건설자들이 건설물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집단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렸으며 잔디밭을 새로 조성하고 주변환경을 잘 꾸려 공장의 면모를 일신시킨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함흥편직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높은 책임성과 창발성을 발휘하여 설비조립과 설치를 실정에 맞게 진행하고 기능공양성사업을 예견성있게 하여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감사문에서 함흥편직공장현대화공사에 참가한 건설자들과 일군들이 당의 호소를 받들고 영웅적인 투쟁을 벌려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을 훌륭히 일떠세운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조업식에서는 안정수경공업상의 조업사에 이어 함흥편직공장 기사장 로성호, 함흥산업건설사업소 기사장 김명호, 함흥편직공장 작업반장 지금순이 토론하였다.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당중앙위원회 감사문을 받아안은 영광에 대하여 언급하고 감사문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해나갈 굳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새 기대와 설비들에 하루빨리 정통하고 부속품과 기료품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우며 과학적인 경영전략을 세우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설비와 생산공정을 최첨단기술로 장비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줄기차게 벌리며 일터마다에서 혁신을 창조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모두가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업식에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조업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새로 꾸려진 함흥편직공장의 생산공정들을 돌아보았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며 세계혁명의 탁월한 령도자이시다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력사에 승리와 영광의 자욱을 아로새기며 주체혁명의 새시대가 펼쳐지고있다.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전진할수록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 인류의 가슴속에 더욱 뜨겁게 차넘치고있는것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충정과 흠모의 마음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만민의 그리움과 칭송, 그것은 조국과 민족, 인류의 자주위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백두산위인들에 대한 숭고한 경의이며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여 나가려는 드림없는 의지의 발현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는 정력적인 활동으로 조국통일의 앞길에 밝은 전망을 열어놓으시였으며 세계자주화위업실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조국의 통일과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위하여 한평생의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으며 그 길에서 이 세상 그 어느 위인도 이룩할수 없는 위대한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업적을 만년재보로 빛내이며 절세위인들께서 가르쳐주신 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가는 여기에 우리 조국과 민족, 인류의 휘황한 미래가 있다는것이 력사와 현실이 보여주는 진리이다.

1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조국통일위업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외세에 의하여 국토가 량단됨으로써 생겨난 문제이다. 이로 말미암아 대대손손 하나의 강토에서 한피줄을 이으며 살아온 우리 민족이 둘로 갈라져 살아야 하는 비극의 력사가 흐르게 되였다. 나라의 분렬로 하여 민족이 겪는 불행과 고통을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우리 겨레에게 하루빨리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기 위해 피타는 노력과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적인 4월 남북련석회의를 소집하시여 온 겨레를 사대매국세력의 민족분렬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로 불러일으키시고 전민족적인 련대련합의 실현으로 통일운동의 앙양기를 펼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생애야말로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통일된 삼천리강산에 인민들이 잘사는 나라를 일떠세우실 불굴의 의지와 완강한 실천으로 빛나는 절세위인의 생애이다. 오늘도 통일전선탑과 판문점의 친필비는 조국통일위업에 쌓아올리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는 력사의 증견자로 높이 솟아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을 자신의 숭고한 사명으로 간직하시고 자주통일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업적을 끊임없이 빛내이시며 민족대단결의 새로운 길을 밝혀주신분도 위대한 장군님이시고 반세기이상이나 막혔던 통일의 물고를 터쳐놓아 통일운동사에 특기할 장을 펼치신분도 우리의 장군님이시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 땅우에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전진하는 6.15통일시대가 밝아오고 10.4선언의 기치아래 하나로 된 강토를 지향하는 통일열풍이 휘몰아치게 되였다. 진정 숭고한 애국, 애족, 애민으로 일관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거룩한 한생이 있어 우리 민족의 통일위업은 력사의 류례없는 도전과 난관을 과감히 박차며 도도히 전진하여올수 있었다.

민족의 숙망을 한몸에 지니시고 애국의 일념으로 온넋을 불태우시며 통일조국의 밝은 앞날을 펼쳐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은 오늘도 래일도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민족의 태양으로 영생하신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의 지도적지침은 통일위업수행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백승의 보검이다.

우리 조국의 통일문제는 어디까지나 조선인민의 내정문제이며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자체의 힘으로, 조선인민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해결하여야 한다는것이 절세위인들의 조국통일로선에 관통되여있는 기본사상이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할수 있는 방략과 방도를 뚜렷이 명시한것으로 하여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조국통일로선은 온 겨레의 절대적인 지지와 열렬한 공감을 받고있다.

조국통일의 새 아침을 앞당겨올 원동력은 우리의 지혜와 의지이며 힘이라는것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확고한 신조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7.4공동성명을 통하여 조국통일3대원칙을 밝히시고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제시하시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실현할수 있는 근본지침을 마련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사상과 로선을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정립하시고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자주적평화통일의 위력한 무기를 마련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6.15북남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발표하시여 조국통일의 리정표를 마련해주신것은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놓은 특기할 사변으로 된다. 민족자주통일의 리념이 북과 남, 해외 온 겨레의 사상감정으로 승화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로선이 낳은 결실이다.

시대의 변화와 그 어떤 정세속에서도 무궁무진한 생명력을 발휘하는 만능의 보검이 절세위인들의 조국통일로선이다. 우리 민족이 부흥하는 길은 첫째도 둘째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조국통일사상과 로선을 철저히 구현하는데 있다. 우리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밝혀주신 로선과 정책을 틀어쥐고 조국통일의 대문을 반드시 열어제낄것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조국통일의 강력한 력량과 토대를 마련해주신것은 통일위업을 승리적으로 완성할수 있게 하는 거대한 민족사적업적이다.

모든 사회적운동과 마찬가지로 조국통일도 강력한 주체적력량이 마련될 때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더우기 조국통일은 온갖 분렬주의세력과의 치렬한 대결을 동반하는 간고한 투쟁인것만큼 주체적력량의 강화는 절박하고 필수적인 요구로 나선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는것을 통일위업수행의 관건적문제로 내세우시고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를 통일애국의 기치아래 굳게 묶어세우시였다. 견결한 자주의식과 민족의 운명에 대한 책임감을 지니고 하나로 굳게 뭉친다면 그 어떤 도전과 시련도 능히 극복해나갈수 있다는 사상이 온 겨레의 심장속에 살아 높뛰고 조국통일범민족련합, 6.15민족공동위원회와 같은 상설적인 통일운동련대기구들이 출현한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정력적인 령도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령도가 있었기에 국제무대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조국통일로선과 그 정당성이 내외에 천명되고 조국통일위업실현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이 마련될수 있었다.

특히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혁명의 총대로 선군조선의 강력한 힘을 마련해주신것은 조국통일위업수행에 쌓아올리신 거대한 업적으로 빛을 뿌리고있다. 미제가 군사적강권책동으로 우리의 조국통일위업을 가로막고있는 조건에서 강력한 군사적 힘을 마련하는것은 통일위업수행의 근본의 근본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의 기치높이 우리 인민군대를 그 어떤 대적도 단매에 때려부실수 있는 백두산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우리 조국의 국력을 튼튼히 다지시였다. 남조선의 언론들이 《제국주의련합세력과 분렬매국세력의 반북압살책동으로 랭각됐던 통일정세를 오늘과 같은 대단합정국으로 수직상승시킨것이 바로 북의 선군정치》라고 한결같이 평한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현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마련하여주신 강한 힘이 있기에 조국통일위업의 유리한 국면이 펼쳐지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마련하여주신 민족대단결의 력사와 전통은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공동의 귀중한 재보이다.

조국통일은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민족적단합을 실현하는 위업이다. 조국을 통일하는데서 그 어떤 절차나 방법상의 문제가 기본이 아니다. 온 민족이 화합하고 하나로 단결한다면 그것이 곧 통일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령도사는 민족의 단합을 위한 력사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제시하시여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이 사상과 정견,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통일의 기치아래 굳게 단결하도록 하시였다. 민족대단결을 위한 어버이수령님의 령도의 자욱은 지난날 민족을 배반하였던 사람들도 통일대업에 나서도록 하신 이야기에도 깃들어있고 분렬주의세력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신 투쟁에도 새겨져있으며 통일의 길에서 공을 세운 애국렬사들과 그 후대들에게 베풀어주신 하늘같은 은정에도 깃들어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통일의 공통분모는 애국, 애족, 애민에 있다는 좌우명을 지니시고 민족대단합의 활로를 열어나가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에 의하여 오랜 세월 이끼가 덮였던 분렬의 장벽에 파렬구가 뚫리고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이 이루어지게 되였으며 북과 남, 해외의 우리 동포들이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의 숭고한 리념을 안고 래왕과 접촉을 실현할수 있었고 대화와 신뢰의 분위기가 차넘치는 6.15통일시대가 펼쳐지게 되였다. 비록 시련과 난관은 있지만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민족대단결의 사상이 있기에 조국통일위업은 승리적으로 전진해나갈것이라는것이 력사가 검증한 진리이다.

참으로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조국통일위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우리 민족앞에 남기신 귀중한 유산이며 통일위업실현의 고귀한 재보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조국통일업적을 영원히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하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실현할것이다.

2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인류자주위업수행에 한생을 바치신 세계혁명의 탁월한 령도자이시다.

지난 20세기와 21세기의 첫 10년대는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에서 인류력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혁명적변혁이 일어나고 진보와 반동,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사이의 투쟁이 가장 격렬하게 벌어진 시대였다. 이 격동의 시대에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력사의 방향타를 잡으시고 인류자주위업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오시였다. 반제민족해방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던 조선혁명의 개척기로부터 혁명이 멀리 전진한 오늘의 시대까지 년대와 년대를 이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길에 한생을 깡그리 바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업적은 세계혁명사에 금문자로 아로새겨져있다.

절세의 위인들에 대한 인류의 다함없는 흠모심은 날이 갈수록 더해만지고있다. 오늘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세계혁명의 탁월한 령도자》, 《세계혁명의 기수》로 끝없이 칭송하며 절세위인들의 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이기 위한 활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위도와 경도를 초월하여 전세계적범위에서 김일성, 김정일열풍이 일어나고있는 현실은 대원수님들께서 세계혁명에 쌓아올리신 업적의 위대성에 대한 뚜렷한 증시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비범한 혁명령도로 사회주의위업을 자주의 궤도우에 올려세우신 탁월한 수령이시다.

지난 세기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세기인 동시에 우리 식 사회주의가 가장 생명력있는 사회주의라는 것이 뚜렷이 검증된 세기였다. 성공의 희열도 있고 쓰라린 교훈도 있는 사회주의운동사는 자주의 기치밑에 전진하는 사회주의만이 승리의 정점에 가닿을수 있다는 진리를 가르치고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회주의건설령도사는 자주의 기치를 굳건히 고수하여온 력사이다. 이 길에는 대국주의자들의 압력을 단호히 짓부시고 자주, 자립, 자위의 로선을 꿋꿋이 고수한 력사도 있고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는 구호밑에 모든 문제를 우리 실정에 맞게 독창적으로 풀어온 로정도 있으며 주체성과 민족성이 강한 불패의 강국을 일떠세운 투쟁경험도 있다. 기성의 리론이 사회주의건설에서 하나의 굳어진 공식처럼 간주되고있던 시기에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은 오직 자주의 원칙에 의거하여서만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는 철의 의지를 지니시고 사회주의건설의 귀감을 창조하신분들이 백두산절세위인들이시다.

지난 세기 90년대는 사회주의가 존재하느냐 마느냐 하는 물음이 시대적과제로 나선 시기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은 허용될수 없다》**,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비롯한 불멸의 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사회주의가 일시 가슴아픈 곡절을 겪고있지만 그 과학성, 진리성으로 하여 반드시 재생되고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게 된다는 철리를 밝히시고 사회주의를 헐뜯던 원쑤들에게 준엄한 철추를 내리시였다. 어버이장군님의 령도밑에 우리 식 사회주의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이겨내고 강성국가건설에로 돌입하는 력사적시대를 맞이하게 된것은 절세위인들의 사회주의건설리론의 위대한 승리로 된다.

오늘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인민들은 조선식사회주의만이 인간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해주는 사회주의라고 한결같이 격찬하고있다.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경험을 따라배우기 위한 투쟁이 하나의 흐름으로 되고있는것이 오늘의 시대이다. 이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고 그 누가 뭐라든 자주의 궤도를 따라 꿋꿋이 나아가는 여기에 사회주의의 승리가 있다는것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령도따라 전진하여온 우리 식 사회주의가 보여준 철의 진리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제국주의반동들의 침략책동으로부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지켜오신 정의의 수호자이시다.

제국주의는 평화의 원쑤이다. 침략과 략탈을 본성으로 하는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지구상에는 총포성이 그칠 날이 하루도 있을수 없다. 평화로운 세계는 오직 제국주의자들과의 투쟁을 통해서만 실현할수 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견결한 반제계급적립장을 지니시고 전쟁의 화근이고 평화의 교란자이며 파괴자인 미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오시였다. 평화와 진보를 요구하는 지구상의 모든 인민들을 미제를 반대하는 하나의 공동전선에 결합시킬데 대한 사상, 평화는 구걸할것이 아니라 투쟁으로 쟁취하여야 하며 제국주의자들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끝까지 맞받아 싸울데 대한 사상을 비롯하여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제시하신 사상리론들은 세계의 평화를 위한 가장 옳바른 길을 밝힌것으로 된다. 제국주의자들의 《평화전략》의 반동적본질을 날낱이 까밝히시고 뿔럭불가담운동을 비롯한 세계반제자주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령도에 의하여 평화로운 새 사회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전환이 일어날수 있었다.

선군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가장 옳바른 전략적로선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무장한 적과는 오직 무장으로 맞서야만 승리할수 있다는 혁명의 진리를 밝히시고 총대로 제국주의원쑤들을 때려부시는 력사의 기적을 창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세계제패를 꿈꾸던 미일 두 제국주의를 쳐부시고 조국의 자주권과 세계평화를 굳건히 수호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의 총대우에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놓여있다는 철의 신념을 지니시고 우리 인민군대를 천하무적의 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나라의 국방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령토도 크지 않은 우리 나라가 미제국주의의 기를 꺾어놓고 인류자주위업을 주도해나가는 불패의 보루로 위용떨칠수 있게 되였다.

오늘 세계사회계의 이목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굳건히 수호하는 선군조선에로 쏠리고있다. 《사회주의조선이 없었다면 지구상에서 진정한 평화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을것이다.》, 《미제를 쥐락펴락하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조선의 선군정치야말로 가장 리상적인 정치이다.》, 이것이 세계정계, 사회계의 목소리이다.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진로를 명백히 밝혀주시고 강위력한 혁명의 총대로 그 실현을 위한 길을 개척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은 진보적인류의 심장속에 영원히 살아있을것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반제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도와주신 가장 위대한 국제주의의 귀감이시다.

매개 나라 민족의 운명은 인류공동의 운명과 밀접히 련결되여있다.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이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혁명투쟁에서 서로 지지협조하고 단결할 때라야 세계자주화위업이 승리적으로 전진할수 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한없이 고결한 의리를 지니시고 국제주의의 숭고한 서사시를 수놓아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쏘련을 무장으로 옹호하자!》**는 구호를 들고 일제의 대쏘침략계획을 파탄시키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시였다. 세계혁명을 위하여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항일혁명투쟁의 첫 시기부터 국제주의의 기치높이 중국혁명을 피로써 도우시고 해방직후 중국의 동북해방전쟁승리에 거대한 기여를 하신데도 깃들어있고 1970년대초 닉슨의 중국방문을 계기로 세계여론이 분분할 때 그것은 승리자의 행진이 아니라 패배자의 행각이라는 명철한 분석으로 중국혁명을 적극 지지하신데도 뚜렷이 새겨져있다.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의견상이가 격화되여 세계사회주의운동에 분렬의 위험이 조성되였을 때에도 원칙적이고 자주적인 립장에 확고히 서서 사회주의나라들이 서로 리해하고 화합을 이룩하도록 하신분이 위대한 수령님이시였으며 다른 사회주의나라들이 반미항전을 벌릴 때에는 아낌없는 원조와 지원을 주신분도 우리의 수령님이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지난 세기 50년대와 60년대에 사회주의력량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전환이 일어나고 사회주의국가들이 단합된 힘으로 제국주의자들에게 결정적타격을 가하는 승리가 이룩될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제국주의자들과 사회주의배신자들의 책동으로 사회주의가 우여곡절을 겪고있을 때 평양선언의 기치밑에 혁명적당들의 국제주의적단결과 련대성을 강화하도록 하시여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분관계를 맺으신 세계 여러 나라 당, 국가지도자들, 정계, 사회계, 학계, 언론계의 저명한 인사들과 벗들을 변함없이 존경하며 우리 혁명의 시련의 시기에 우리 인민을 사심없이 도와준 혁명전우들과 형제적인민들,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성원해준 모든 나라 인민들을 잊지 않고 친선의 뉴대를 변함없이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고결한 혁명적의리는 만사람을 경탄시키고있다.

미제와 직접 맞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는 조건에서 사실상 우리에게도 부족하고 모자라는것이 많았다. 하지만 힘이 좀 들더라도 반제자주의 길로 나아가는 발전도상나라들을 물질적으로 도와주는것이 참다운 국제주의적의무라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사상이 있었기에 인류자주위업이 힘있게 전진해올수 있었다. 하기에 세계혁명적인민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회고하면서 그처럼 사심없이 적극적으로, 물심량면으로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주신 전설적위인들이시라고 끊없이 격찬하고있는것이다.

진정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탁월한 령도가 있어 20세기와 21세기 첫 10년대가 자주의 시대로 자기의 력사적지위를 뚜렷이 남길수 있었으며 세계혁명은 련이어 겹쳐드는 력사의 도전과 정치풍파를 이겨내며 자기 발전의 길을 성공적으로 개척할수 있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세계혁명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력사적공적으로 하여 오늘도 래일도 세계혁명의 수령으로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흠모와 칭송을 받고계신다.

* *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개척하고 이끌어오신 조국통일위업과 세계자주화위업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힘있게 다그쳐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뜻을 이어 조국통일과 세계자주화위업을 끝까지 이룩하시려는 확고한 의지를 지니고계신다. 민족우선, 민족중시, 민족단합의 립장에서 조국통일의 대의에 모든것을 복종시킬데 대하여 명철하게 가르쳐주시고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밑에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해나가시기 위해 정력적으로 활동하고계시는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통일조선의 찬란한 래일을 확신하고있으며 세계 진보적인류는 자주화된 새세상을 그려보고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굳건히 고수해나가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기에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과 세계자주화위업은 반드시 실현될것이다.

박 연, 리학남, 은정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에게 위문전문을 보내였다

프레토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쟈코브 게들레이흘레키사 주마각하

나는 남아프리카인민이 낳은 훌륭한 아들인 넬슨 만델라각하가 오랜 병환끝에 세상을 떠났다는 슬픈 소식에 접하여 당신과 당신을 통하여 남아프리카정부와 인민 그리고 고인의 유가족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남아프리카에서의 반인종주의위업과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쌓아올린 넬슨 만델라각하의 업적은 남아프리카인민과 진보적인류의 기억속에 영원히 남아있을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령도밑에 남아프리카정부와 인민이 고인의 념원대로 번영하는 새 사회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성과를 거둘것을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2(2013)년 12월 6일 평 양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공장을 더욱 빛내여갈 결의에 넘쳐있는 종업원들 —평양방직기계공장혁명사적관에서— 본사기자 찍음

영원한 승리의 기치, 백승의 담보

조선로동당규약 서문에는 이렇게 밝혀져있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고귀한 업적을 천추만대에 빛내여나갈것이며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거룩한 존함은 조선로동당과 더불어 영구불멸할것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거룩한 존함으로 빛나는 조선로동당!

바로 여기에 이 세상 그 어느 당도 지녀본적이 없는 높은 권위와 불패의 위력으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력사에 길이 빛날 위대한 업적을 이룩하고있는 조선로동당의 영광과 존엄, 긍지가 비껴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당의 창건자이신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이며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하여오신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입니다.》

우리 당이 걸어온 시련에 찬 투쟁의 길에도, 영광에 넘친 승리의 길에도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자욱이 새겨져있으며 우리 당이 이룩한 불멸의 업적도, 우리 당이 지닌 불패의 위력과 높은 권위도 백두산위인들의 성스러운 존함과 결부되여있다.

조선로동당 제3차, 제4차 대표자회는 우리 당을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와 번영의 한길로 계승완성해나가는데서 중대한 정치적의의를 가지는 일대 사변으로 되였다.

당창건 65돐을 앞둔 주체99(2010)년 9월 28일,

그날 조선로동당 제3차 대표자회장은 크나큰 격정과 환희로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졌다.

《본 당대표자회는 온 나라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반영하여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할것을 결정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할데 대한 결정서가 전체 참가자들의 폭풍같은 환호속에 만장일치로 채택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을 우리 당의 최고지도기관에 영원히 높이 모신다는것을 엄숙히 선포하였다.

이것은 당과 혁명을 진두에서 이끄시며 시대와 력사앞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에 대한 천만군민의 다함없는 감사와 절대적인 신뢰심의 분출이였으며 또 한분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주체혁명을 승리적으로 줄기차게 이어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굳센 신념과 의지의 과시였다.

조국과 민족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초강도의 혁명활동을 벌리시였으며 우리 당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끄시여 강성번영의 만년토대를 굳건히 다져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

불세출의 위인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하늘처럼 믿고 살아온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심장에 장군님은 민족의 어버이로, 우리 당의 총비서로 깊이 새겨져있다.

지난해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뜻깊은 태양절을 앞두고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인 동시에 장군님과 선군혁명의 길을 함께 걸으시며 우리 당과 혁명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이기도 하였다.

당대표자회가 있기 며칠전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격정속에 메아리쳐온다.

우리는 장군님을 영원히 우리 당의 총비서로 높이 모셔야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갈수 있습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의 직함은 세대가 아무리 바뀌여도 오직 장군님께서만이 지니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대표자회에서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실데 대한 력사적인 결정을 채택하고 그것을 당규약에 명문화하려고 합니다. …

정녕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수령영생위업실현의 새 력사가 펼쳐지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의도하신대로 혁명과 건설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확신성있게 이끌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될수 있었다.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탁월한 정치실력, 특출한 령도풍모를 천품으로 지니신 또 한분의 걸출한 인민의 령도자를 높이 모시여 백두에 날리던 붉은 기폭에 승리와 영광만을 아로새겨온 조선로동당이 새로운 주체100년대에도 변색을 모르고 힘차게 휘날릴것이라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이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간직한 진리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심으로써 조선로동당은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되고 우리 일심단결의 력사와 전통은 꿋꿋이 이어질수 있게 되였다.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인 조선로동당,

이것은 우리 혁명의 영원한 승리의 기치이며 백전백승의 담보이다.

하기에 오늘 이 나라 천만군민은 우리의 희망이며 아름다운 미래인 당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겠다는 신념의 노래를 더 높이 부르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어 우리 당은 영원히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빛날것이며 내 조국은 반드시 사회주의강성국가로 온 세상에 빛을 뿌릴것이다.

본사기자 백 영 미

백두의 행군길을 끝까지 이어갈 신념과 의지가 빛발치는 력사의 땅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삼지연군에 새기신 불멸의 자욱을 따라

유서깊은 삼지연!

멀리 흰눈을 떠이고 거연히 솟은 백두산이며 못가의 봇나무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였던 그날의 감격을 전하여주는 력사의 땅을 다시 찾은 우리의 가슴은 이름 못할 격정으로 설레이였다.

온 나라 인민의 마음속에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더욱 사무쳐오는 12월을 앞두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유서깊은 력사의 땅을 찾으신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넋이 깃들어있고 우리 혁명의 뿌리가 내린 조종의 산, 혁명의 성산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발자취가 력력하고 그이의 야전차바퀴자리가 아직도 생생한 눈길을 따라 취재를 이어가는 우리의 심장은 여느때없이 쿵쿵 뛰였다.

혁명전통은 우리 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한 명맥

흰눈덮인 천고밀림에 오늘도 높이 솟아 빛나는 삼지연대기념비를 바라보는 우리의 가슴은 격정으로 높뛰였다.

조국진군의 길에 오르시였던 력사적인 그날의 모습그대로 군복차림을 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불세출의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신 조선혁명의 백승의 력사를 되새겨보시는듯 삼지연못가에 모신 수령님의 동상을 오래도록 바라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직접 발기하시고 건립해주신 삼지연대기념비는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주체혁명위업의 정당성을 심오한 사상예술적형상으로 보여준 영웅서사시적화폭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영웅서사시적화폭!

참으로 뜻깊은 말씀이였다.

세상에는 풍부한 내용과 예술성을 자랑하는 기념비들이 많지만 삼지연대기념비와 같이 그처럼 규모가 크고 사상예술성에 있어서 인민대중의 지향을 훌륭히 담아 형상한 이런 기념비를 아직 알지 못한다.

삼지연혁명전적지건설의 장엄한 포성이 울린 1970년대, 몸소 건설현지에 나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백두산을 배경으로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모실 위치로부터 형성안과 형상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지도해주시였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모시는 사업이 끝났을 때에는 해빛이 잘 비치는 한낮에도 나와보시고 뭇별이 총총한 밤에도 나와보신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항일의 혁전만리를 헤쳐온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항일성전에 떨쳐나선 인민들의 모습을 형상한 부주제조각군상들도 보아주시고 삼지연대기념비를 돌아보니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결심과 의지가 더욱 굳세여진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날의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량강도당위원회 책임비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진정 그 말씀은 우리 혁명이 새로운 력사적전환기에 들어선 오늘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어버이장군님께서 만년초석으로 굳건히 다져주신 주체혁명위업을 기어이 완성하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선언이였습니다.》

력사적인 그 선언을 심장깊이 새겨안으며 우리는 삼지연혁명전적지답사숙영소에로의 취재길을 이어갔다.

이곳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통나무집형식으로 지은 대학생1각을 이윽토록 바라보시며 백두밀림의 자연풍치와 잘 어울리게 특색있게 지었다고 말씀하시였다. 이어 대학생식당홀이며 주방까지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답사숙영소의 봉사활동정형과 답사자들의 생활조직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시고 혁명전적지답사자들을 위한 생활거점답게 답사숙영소의 내부를 더 잘 꾸려주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때를 돌이켜보며 삼지연군당위원회 책임비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도 새 세대들이 백두산의 칼바람을 맞아봐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귀전에 들리는것만 같습니다. 저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언제나 명심하고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에서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답사를 통한 교양사업을 더욱 심화시켜나가겠습니다. 하여 답사자들모두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심장깊이 체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뜻깊은 그날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답사는 우리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항구적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사업이라고 거듭 강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되새길수록 우리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우리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항구적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사업!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마련해주시고 빛내여주신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더욱 발전풍부화시키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웅지가 집대성된 심오한 혁명의 진리를 새겨안으며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높으신 뜻을 더 잘 받들어나갈 맹세로 심장의 피를 끓이였다.

삼지연군 인민들을 잊지 않으신 숭고한 사랑

우리 원수님께서 삼지연군을 현지지도하신것은 이해의 12월을 앞둔 평범한 날이였다.

이날 삼지연읍 주민들은 거름을 듬뿍 실은 눈썰매를 끌고 남새온실농장으로, 아이들은 스키를 메고 베개봉으로 가고있었다.

그무렵 소문도 없이 군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삼지연학생소년궁전에 먼저 들리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삼지연학생소년궁전은 어버이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던 아이들의 궁전인것만큼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상초상화를 더 밝고 정중히 모시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궁전을 몇차례 현지지도 하시였는가고 물어도 주시고 실내온도를 가늠해보시고서는 아이들이 춥지 않게 벽을 더 두텁게 해주라고, 겨울철에 학생들의 과외소조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실내온도보장대책에 대하여 따뜻이 일러주시였다.

연혁소개실에 들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30여년전 당시에는 2층이던 궁전이 어버이장군님의 은정깊은 사랑속에 본관은 5층, 체육관은 3층으로 되고 극장도 개건되였다는 부총장의 이야기를 주의깊게 들어주시였다. 이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물리소조실에 들리시여 실습기재는 언제 받은것인가도 알아보시였고 자동차소조실을 찾으시여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가 다정히 물어주시며 소조원들이 좋아한다는 대답을 들으시고는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체육관에 들리시여서는 조명조건을 원만히 갖추어주며 체육기재들을 더 잘 설치해줄데 대하여 이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소조는 몇개인가, 스키소조는 어디서 훈련하는가에 대하여 일일이 물어주신 사연을 되새기며 삼지연학생소년궁전 부총장은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지열난방체계를 도입하여 실내온도를 보장해주자고, 궁전건물의 외형이 비교적 손색이 없으니 내부를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개건하자고, 설계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당에서 맡아 밀어주겠다고 하실때 저는 솟구치는 격정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그러시고도 못다 주신 사랑이 있으신듯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궁전을 개건할 때 소조실들의 교구비품들도 모두 새것으로 바꾸어주자고 말씀하시는 순간 저는 눈물을 쏟고야말았습니다.

진정 한평생 온 나라 어린이들을 그처럼 사랑하시던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꼭같으신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여 백두산대국의 앞날은 창창합니다.》

우리는 후더워지는 마음을 안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베개봉국수집으로 향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날 국수집의 1층과 2층의 여러 식사칸들을 돌아보시며 봉사활동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면서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봉사활동이 철두철미 인민을 위해 복종되여야 한다고 하신 어버이장군님의 뜻깊은 사적이 깃들어있다고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모든 봉사활동을 철저히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원칙에서 해나갈데 대한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이어 군문화회관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여러차례 다녀가신 사적단위답게 군내 인민들의 문화정서적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게 회관관리운영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시였다.

력사적인 그날을 돌이켜보며 이곳 회관 관장은 여러해전 함박눈내리는 삼지연읍거리를 걸으시며 이 고장 인민들을 위하여 그토록 마음쓰시던 어버이장군님을 다시 만나뵈온 심정이였다고 격정을 터놓는것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실내호케이장과 야외스케트장, 스키주로가 있는 체육촌에서 만나뵈옵는 영광을 지닌 백두산지구체육촌 지배인은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백두산지구체육촌개건을 당에서 직접 밀어주겠다고 하시면서 설계와 시공에 이르기까지 개건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시였습니다.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백두산지구체육촌에 산악스키주로를 더 잘 꾸려주고 인공잔디를 깐 축구장도 마련해주어 삼지연군 인민들이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누릴수 있게 해주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삼지연군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산혁명전적지에서 사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전국의 앞장에서 달려나가리라는 기대와 믿음을 표시하시면서 군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해주시였다. 그러시면서 군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빛내여나가도록 중앙과 도에서 잘 도와주어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현지지도를 마치고 떠나시면서 자신께서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을 지척에 바라보며 사는 삼지연군 인민들을 늘 생각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이 감격적인 소식에 접한 군안의 전체 인민들은 하늘땅이 떠나가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만세!》를 목청껏 터쳤다.

그때로부터 며칠후 삼지연군 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수백t의 물고기를 받아안았으니 한량없는 우리 원수님의 사랑을 무슨 말로 다 이야기할수 있단 말인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이 깃든 물고기가 렬차로 백암령을 넘고 자동차들에 실려 군에 도착한 그날 온 삼지연군 인민들은 한없는 고마움에 눈굽을 적시며 감격과 기쁨에 넘쳐 잠들줄 몰랐다.

한생을 혁명사적일군으로 일해오는 백두관 과장 강화숙동무는 이 감격적인 소식을 한시바삐 인민군대에 나간 아들에게 전하고싶다고 하면서 백두의 혁명전통을 끝까지 옹호고수할 철석의 맹세를 더욱 굳게 다지였다.

백두대지에 태를 묻고 살아온 삼지연읍 45인민반의 김정순로인은 전후 어버이수령님께서 남새가 잘되지 않는 이 고장 실정을 헤아리시여 백암령너머에서 남새를 실어다 공급하도록 해주신 일을 잊을수 없다, 그리고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비행기에 과일을 실어 보내주신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난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 감사의 큰절을 올리였다.

이들만이 아니였다.

삼지연고급중학교 교장 원종현동무는 우리 군의 매 가정이 다 그러하겠지만 식구가 다섯이나 되는 우리 집에서는 남들보다 곱절이 되는 은정깊은 물고기를 받아안았다, 앞으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라시는대로 학생들을 백두산기슭에서 나서자란 새 세대답게 혁명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더 잘 키우겠다고 불같은 결의를 다지였다.

사랑과 믿음에는 보답이 따라야 한다. 삼지연읍으로부터 리명수, 포태로동자구, 백두산아래 첫 동네로 불리우는 신무성과 무봉마을에 이르기까지 지금 온 삼지연땅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 관철에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백두산혁명전적지에서 사는 사람들답게 감자농사에서도, 교육과 체육을 비롯한 문화발전과 인민봉사사업에서도, 군을 사회주의무릉도원으로 꾸리는데서도 우리가 전국의 앞장에 서자!

이곳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지금 이런 결사의 각오를 안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신 현지말씀 관철을 위하여 심장의 더운 피를 펄펄 끓이고있다.

참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삼지연군 여러 부문 사업에 대한 현지지도는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며 항일선렬들의 고귀한 피가 스민 백두산기슭에서부터 로동당만세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하려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소리높이 선언한 력사적인 장거로 우리 당력사에 찬연히 아로새겨질것이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전 철 주

평양대흥모피공장창립 60돐 기념보고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평양대흥모피공장창립 60돐 기념보고회가 3일에 진행되였다.

관계부문 일군들,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평양대흥모피공장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이 전달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창립 60돐을 맞는 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고 지적하였다.

축하문은 평양대흥모피공장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발기와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창설되고 발전하여온 우리 나라 모피공업의 모체공장이라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후 어려운 시기 주체적인 모피공업을 건설하실 구상을 안으시고 주체42(1953)년 12월 1일 평양대흥모피공장을 창립하여주시였으며 강력한 기술력량과 귀중한 설비들을 마련해주시고 공장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공장을 종합적이며 현대적인 생산기지로 전변시키시고 원자재보장을 위한 조치도 취해주시였으며 공장로동계급이 이룩한 자그마한 성과도 높이 평가해주시면서 생산적앙양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고 강조하였다.

우리 당은 평양대흥모피공장 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주었으며 세계적인 발전추세에 맞게 생산공정들을 새로 꾸리고 갖가지 털제품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공장이 창립후 60년간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따라 창조와 위훈으로 빛나는 자랑스러운 연혁을 새겨오면서 부강조국건설과 나라의 모피공업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한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창조적지혜와 애국열의를 발휘하여 수백건의 가치있는 기술혁신안과 합리화안을 생산에 받아들여 해마다 국가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투철한 수령관과 불타는 조국애를 지니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어온 평양대흥모피공장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의 애국충정을 높이 평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지배인 리경민의 보고에 이어 기사장 원용남, 로동자들인 정수애, 백옥희가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따라 공장이 자랑찬 성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언급하고 당중앙위원회 축하문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질좋은 털제품들과 가죽제품들을 더 많이 개발생산하며 생산공정의 현대화, 경영활동의 과학화를 다그침으로써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기여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 관철로 들끓는 협동벌

다진 맹세 끝까지 지키리

각지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

12월이 시작된 이른새벽,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에 정중히 모셔진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모자이크영상작품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었다.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영상을 우러르는 그들의 눈굽은 축축히 젖어있었다. 그럴수록 그들에게는 대국상의 비보에 접하였을때 피눈물을 쏟으며 심장으로 다진 맹세가 되새겨졌다.

—우리 장군님의 유훈을 맨 앞장에서 관철하는 애국농민이 되자!

그날에 다진 맹세를 지키기 위해 미곡리사람들은 떨쳐나섰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사준비를 잘하는것은 알곡생산을 늘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미곡벌이 거세찬 불길마냥 세차게 끓어번졌다. 작업반들은 더 많은 거름을 생산하기 위해 들끓었고 포전에서는 뜨락또르들의 발동소리가 그칠새 없었다.

미곡협동농장만이 아닌 재령군 삼지강, 태천군 은흥, 룡천군 신암, 함주군 동봉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도 농사차비에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전에 그토록 념원하신 풍년가을을 기어이 안아오려는 본보기단위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불같은 열의가 온 벌에 차넘쳤다. 그들의 뒤를 이어 각지 농업부문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도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켰다.

황해남도 농촌들이 농사차비로 부글부글 끓어번졌다. 재령벌, 연백벌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올해농사실태를 분석한데 기초하여 거름을 더 많이 생산할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안악군 오국협동농장이 혁신의 앞장에 섰다.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가슴속에는 강성번영하는 조국의 새봄을 기어이 불러올 결의가 차넘쳤다. 이들은 매일 거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어찌 이 농장뿐이랴.

흙보산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치고있는 재령군 래림, 북지협동농장의 농업근로자들, 중소농기구들을 빈틈없이 갖추는데 품을 들이는 신천군 백석협동농장과 새날농장의 농업근로자들…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해 드세찬 공격전을 들이댔다. 높뛰는 심장들이 하나로 고동친 날과 날들이 있어 농사차비에서는 전례없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평안남도의 농촌들에서도 거름생산전투가 힘있게 벌어졌다. 문덕, 숙천, 평원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거름이 실려나간것만큼 쌀더미가 높아진다고 하면서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농장, 작업반, 분조들은 물론 농장원세대들에서도 더 많은 거름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거름생산전투로 끓고있는 문덕군 립석협동농장으로 가보자.

발동소리 높이 울리는 뜨락또르들과 집집마다에서 생산한 거름을 등에 지고 떨쳐나선 사람들의 대오가 포전길을 꽉 메웠다. 다음해농사를 잘 지어 기어이 풍년로적가리를 높이 쌓으려는 결의 안고 산악같이 일떠선 농업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으로 시간마다 새로운 혁신이 창조되였다.

평안북도의 농촌들에서도 농사차비전투가 힘있게 벌어졌다. 운전군 운하협동농장을 비롯한 도안의 농장일군들은 종전보다 더 많은 거름을 생산하기 위한 대담한 목표를 세웠다. 간단치 않은 량이였다. 하지만 농업근로자들속에서는 이런 신념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쌀로써 결사옹위하는 농민영웅이 되자.

포전들에서는 격전장을 방불케 하는 농업근로자들의 치렬한 전투가 벌어졌다.

서해지구의 농촌들에서 혁신의 기상이 나래칠 때 동해지구의 농촌들에서도 농사차비를 질적으로 하기 위한 투쟁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었다.

농사차비에서 날마다 혁신을 일으키고있는 각지 농업부문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투쟁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해 어떻게 살며 일해야 하는가를 다시금 깊이 새겨안았다.

농업전선을 지켜선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이렇게 웨치고있다.

—12월에 다진 맹세를 끝까지 지켜 이 땅에 기어이 오곡백과 무르익는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리라!

본사기자 윤 용 호

년간계획 빛나게 수행

문천강철공장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기술을 혁신하고 그에 기초하여 자력갱생하는것이 진짜자력갱생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와 호소문에서 제시된 과업 관철에 떨쳐나선 문천강철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뜻깊은 올해를 빛나게 장식할 열의를 안고 힘찬 투쟁을 벌려 압연강재생산을 비롯하여 맡겨진 년간생산계획을 지표별로 앞당겨 수행하는 로력적위훈을 세웠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공장의 일군들은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키면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알아보고 풀어주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오늘의 자력갱생은 현대적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이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도록 로동자, 기술자들을 적극 떠밀어주었다.

강철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제강시간을 단축하는 동시에 쇠물량을 늘일수 있는 수십건의 기술혁신안을 받아들여 강철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압연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설비관리를 짜고들고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매일 자기들앞에 맡겨진 계획을 넘쳐 수행함으로써 원산군민발전소건설장과 버섯공장건설장을 비롯한 도의 중요대상건설장들에 필요한 각종 규격의 환강을 원만히 생산보장하였다.

공무직장과 운수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공무설비들을 새롭게 개조하고 륜전기재들에 대한 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여 철강재생산을 늘이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특파기자 신 천 일

그리움으로 불타는 백두삼천리벌

대흥단군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기 단위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사적을 빛내이고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생전의 뜻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이 뜨겁게 새겨진 력사의 땅 백두삼천리벌이 끓는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구운 감자로 끼니를 에우시며 감자농사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는데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고 자동차들과 여러가지 농기계들을 보내주신 위대한 장군님,

날이 갈수록 그이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더욱더 가슴뜨겁게 안겨와 오늘도 대흥단군 사람들은 날이 밝기 바쁘게 일손을 잡는것이다.

군일군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대로 농장들에서 감자종자보관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하는 한편 더 많은 유기질비료를 생산하기 위한 투쟁에로 농업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농사동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은 다음해 감자농사를 본때있게 지을 불같은 마음으로 니탄캐기전투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서두농장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도 포전마다에 거름을 두툼하게 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유기질비료생산을 다그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더욱 빛내여갈 한마음안고 산악같이 떨쳐나선 홍암, 신덕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이 유기질비료생산을 다그치면서 여러가지 운반수단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포전에 실어내고있다. 창평, 신흥농장을 비롯한 다른 농장들에서도 작업반별, 분조별사회주의경쟁의 불길높이 유기질비료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산악같이 일떠선 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열의에 의하여 백두삼천리벌은 날이 갈수록 더욱 세차게 끓고있다.

본사기자 한 성 일

모판자재준비를 착실히

은파군 대청농장에서

은파군 대청농장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령도업적이 깃든 뜻깊은 고장이다.

12월의 하루하루가 흐를수록 이곳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으로 가슴 불태우며 다음해농사차비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농장일군들은 올해농사경험을 분석한데 기초하여 튼튼한 벼모를 내야 정보당 수확고를 높일수 있다는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여기에 큰 힘을 넣고있다.

일군들이 작업반들을 맡고내려가 모판자재를 항목별로 따져보면서 필요한 대책을 세우며 대중을 이끌어나가고있다.

제2작업반원들이 모판자재준비에서 앞장에 서고있다. 작업반원들은 활창대 하나도 질적으로 만들고있다.

제1작업반의 농업근로자들도 튼튼한 벼모를 기르자면 그 준비를 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말장과 나래를 넉넉히 마련하고있다.

다른 작업반들에서도 사회주의경쟁의 불길높이 집단적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다음해농사에 필요한 말장, 활창대를 비롯한 많은 모판자재를 마련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농장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다음해에 기어이 풍년로적가리를 높이 쌓을 열의를 안고 농사차비를 더욱 다그치고있다.

본사기자 정 성 일

주체건축사에 빛나는 년대기들을 더듬어

천리마시대의 자랑찬 창조물들

우리 공화국의 성스러운 력사와 더불어 이 땅우에는 시대를 대표하는 기념비적건축물들이 수많이 일떠섰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창조와 건설의 자랑스러운 력사를 수놓아온 빛나는 년대들이 그 기념비적건축물들마다에 어려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력사의 창조물인 건축은 해당 사회의 지배적인 사상을 구현하며 그 사회에 사는 사람들의 리념을 반영한다.》

매 시대의 건축물들에는 당대 사회 인민들의 사상정신적면모와 미학관, 창조적능력과 발전수준이 반영된다.

시대의 상징-천리마동상

위대한 수령님의 발기와 세심한 지도밑에 건립된 천리마동상은 시대를 상징하는 기념비로 오늘도 빛을 뿌리고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 시대를 상징하는 기념탑을 세울데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이후 형성안을 친히 보아주시면서 기념탑이름을 《천리마동상》이라고 지어주시였다. 그러시고 형성안을 완성하는데서 나서는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비범한 예지에 의하여 천리마동상은 시대의 기상을 그대로 상징한 훌륭한 걸작품으로 완성되게 되였다.

주체50(1961)년에 집체창작하여 평양시 모란봉기슭의 만수대에 세운 천리마동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49돐을 맞는 주체50(1961)년 4월 15일에 제막되였다.

이 기념탑은 당중앙위원회편지를 높이 추켜든 로동자와 벼단을 안은 녀성농민이 날개를 펼치고 하늘높이 날아오르는 천리마를 함께 타고 질풍같이 달리는 모습을 형상한 청동조각상과 화강석으로 된 조각대로 이루어졌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를 하루빨리 건설하려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과 불타는 혁명적열정을 반영하고있는 천리마동상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의 총로선인 천리마운동을 주제사상적내용으로 하고있다.

천리마의 기념비적형상은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기 위한 천리마운동의 비상한 속도를 진실하게 표현하고 있다.

머리를 높이 쳐들고 힘껏 굽어안은 앞발굽과 구름을 세차게 뒤로 차던지는 뒤발굽은 구름우로 날고있는 천리마의 강한 률동성을 나타내고있으며 멀리에서 보아도 전진과 비약의 기상을 받아안게 하고 있다.

천리마동상은 상징화와 양식화수법을 대담하게 적용하여 창작되였을뿐아니라 기념비조각이 갖추어야 할 모든 규범들을 다 갖추면서 간결하고도 힘있게 형상되여있다.

천리마동상은 조선인민의 영웅적기개를 시위하는 기념비로, 천리마조선의 상징으로 세계에 널리 알려져있다.

전후 첫 조선식건물의 본보기-평양대극장

평양대극장은 전후 수도에 민족적형식의 건물로 처음 일떠선 자랑찬 창조물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전후복구건설이 한창이던 때 수도에 극장을 조선식으로 크게 지을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몸소 그 터전을 잡아주시였으며 여러차례 건설장을 찾으시면서 대극장을 민족적형식으로 짓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이렇듯 평양대극장은 지붕형식으로부터 극장이름에 이르기까지 어버이수령님의 정력적인 령도와 세심한 손길에 의하여 일떠선 천리마시대의 대표적인 창조물의 하나이다.

평양대극장은 승리거리와 영광거리의 이음부에 있는 조선식 건축양식의 큰 극장으로서 주체49(1960)년 8월에 개관되였다.

극장은 승리거리의 축에 맞추어 축대칭으로 형성되였으며 정면의 량쪽과 왼쪽 및 오른쪽 옆벽들에는 모자이크벽화가 화려하게 그려져있다.

승리거리의 한끝을 강조하면서 크고작은 합각식지붕들이 겹겹이 무리지어 높이 솟은 극장은 웅장화려하고 민족적인 건축양식의 특색이 두드러져 승리거리건축형성과 대동강안건축형성에서뿐아니라 수도의 도시전반건축형성에서 주요한 몫을 차지하고있다.

평양대극장은 우리의 주체예술이 꽃펴나는 예술창조기지로, 우리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이바지하는 기념비적건축물로 되고있다.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를 비롯하여 각종 정치행사와 예술공연들이 수많이 진행되였으며 특히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창조된 5대혁명가극이 공연된것으로 하여 평양대극장은 오늘도 우리 인민들이 친근감을 안고 찾는 문화정서생활기지로 되고있다.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건축업적을 빛내여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평양대극장이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건됨으로써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을 더욱 아름답게 꽃피워주고 있다.

후대사랑의 결정체-평양학생소년궁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장대재우에 아동궁전을 제일 높은 집으로 지어주실 원대한 구상을 안고계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주체49(1960)년 9월 평양학생소년궁전의 형성안을 몸소 보아주시면서 그 규모와 형식, 내용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건축전문가들도 미처 깨닫지 못하였던 문제까지도 바로잡아주시면서 여러차례나 건설장을 찾으시여 궁전건설에 필요한 모든것을 아낌없이 돌려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에 의하여 평양학생소년궁전은 처음 설계보다 6배나 더 큰 건물로,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학생소년들의 지덕체교양의 훌륭한 전당으로 일떠설수 있었다.

평양학생소년궁전은 주체52(1963)년 9월 30일에 창립되였다.

궁전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소년단원들을 한품에 안고계시는 동상이 정중히 모셔져있으며 그앞으로는 세상에 부럼없이 배우며 자라나고 있는 우리 나라 학생소년들의 행복한 모습을 형상한 조각상들이 세워져있다.

궁전의 연건평은 5만㎡이며 부지면적은 11만㎡이다.

궁전에는 수많은 소조활동실들과 극장, 체육관, 도서관 등이 있다.

평양학생소년궁전은 건물의 사명을 잘 표현하면서 평양시 중심부의 도시형성상요구에 맞게 건설되여있다.

탑식건물을 세우고 여기에서 직각이 되게 건물들을 형성하였는데 그 건물의 북동쪽에는 곡면지붕으로 된 체육관, 남서쪽에는 극장이 있다.

높은 탑식건물과 체육관 그리고 극장이 서로 강한 대조를 이루게 하면서 그것들을 하나의 건축물로 결합시킴으로써 관리운영이 편리할뿐아니라 비대칭으로 형성되여 생기발랄한 학생소년들을 위한 건물의 사명이 잘 표현되고 평양시의 풍경을 아름답게 돋구어주고있다.

이밖에도 옥류관, 옥류교 등 많은 건축물들이 창조와 기적으로 위대한 전변을 안아온 천리마조선의 기상을 과시하는 기념비적창조물로 오늘도 빛을 뿌리고있다.

글 본사기자 공 로 혁
사진 본사기자 전 성 남

김만유병원 의료일군들

선진적인 수술방법들을 확립해간다

오늘 우리 나라의 심장외과부문은 많은 발전을 이룩하고있다. 최근에만 하여도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3개판막동시치환성형술, 선천성심장복합기형수술 등 선진적인 수술방법들이 확립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되고있다.

이런 놀라운 성과들은 우리 나라의 심장외과부문을 가까운 몇해안에 세계적인 높이에로 올려세울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걸음걸음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다.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온갖 심혈과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불타는 그리움을 안고 김만유병원 의료일군들은 올해에만 하여도 백수십건이 넘는 심장외과수술을 진행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얼마전에는 심장대혈관질병에 대한 어려운 수술을 성공시켰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의학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치료예방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으며 보건사업을 높은 과학기술적토대우에 올려세울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높은 의학기술의 하나로 알려져있는 심장대혈관질병에 대한 수술은 수술방식이 매우 복잡한것으로 하여 심장외과학이 발전되였다고 하는 나라들에서도 높은 급의 병원들에서만 진행한다고 한다.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앞장에서 받들어갈 열의로 충만된 심장외과 과장 조광호동무를 비롯한 의료집단은 대담하게 수술할것을 결의해나섰다. 수술해야 할 환자는 외국출장도중에 병세가 악화되여 그 나라 병원에서 수술하기로 되여있었다. 그러나 엄청난 수술값은 그로 하여금 우리 나라 사회주의무상치료제의 고마운 혜택을 다시금 절감하게 하였다. 이곳 병원으로 오기까지의 환자의 이야기는 의료일군들의 가슴을 더욱 끓게 하였다.

사실 이번 수술은 처음인데다가 많은 어려움을 동반하고 있었다. 상행대동맥 및 대동맥판막의 치환과 좌우관상동맥이식술을 동시에 진행하여야 하는것만큼 순간의 실수는 돌이킬수 없는 후과를 초래할수도 있었다.

의료일군들은 여러 심장질환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얻은 경험들과 발전된 나라들에서 진행하고있는 심장수술법들을 연구하면서 우리 식의 새로운 수술방법을 찾아내였다. 이 방법은 수술후 예견되는 합병증의 발생률을 능히 줄일수 있었다.

의료일군들의 진지한 노력으로 수술은 성과적으로 끝나게 되였다. 마침내 고르로와진 심장의 박동소리를 들으며 새 삶을 받아안은 행복으로 환자와 가족들은 기쁨에 어쩔줄 몰랐다. 자기들을 향해 고마움을 토로하는 가족들의 손을 뜨겁게 잡으며 의료일군들은 말하였다.

《오늘의 성과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심장외과부문의 발전을 위해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다만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일했을따름입니다.》

30대, 40대 의료일군들로 꾸려진 이곳 의료집단은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수많은 선진적인 심장외과수술을 원만히 진행하고있다.

지금 이곳 의료집단은 심장외과부문을 가까운 몇해안에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자신만만한 열의로 충만되여있다.

본사기자 김 옥 별

불멸의 친필을 아로새긴 사랑의 옥류교

민족적형식의 건물로 훌륭히 일떠선 평양대극장

공장안에 차넘치는 체육열기

선교편직공장에서 대중체육열의가 더욱 높아가고있다.

공장책임일군들부터가 체육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앞장서고있다.

공장에서는 체육상식과 체육소식을 알려주는 소개판을 공공장소들에 게시해놓고 종업원들의 체육열의를 북돋아주고있다.

이와 함께 월마다 어김없이 직장별, 부서별체육경기를 조직진행하고있다.

공장창립일을 맞으며 배구, 축구경기가 공장종업원들의 관심속에 이채를 띠고 진행되였다.

체육이 생활화되여 공장구내 그 어디에서나 체육열의로 들끓고있다.

대중체육활동이 활발히 벌어지니 공장종업원들의 생산의욕도 나날이 높아지고있다.

공장의 종업원들은 대중체육을 통하여 단련된 튼튼한 몸으로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투쟁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로농룡신원 김 선 수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6일 김윤선 오사까조선고급학교 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그들은 숭고한 사랑으로 조국의 미래를 가꾸어주시고 재일동포자녀들에게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으며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국가과학원 과학연구성과전시회 진행

국가과학원 과학연구성과전시회가 3일부터 6일까지 진행되였다.

당의 과학기술정책을 받들고 국가과학원의 과학자, 연구사들은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올해의 과학연구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전시회에는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서 이룩된 수백건의 성과자료들이 출품되였다.

또한 과학연구기관들과 과학자들이 집필출판한 과학기술도서들과 론문 등이 전시되였다.

전시회에서는 인민경제 여러 분야에서 실천적의의가 있는 론문들과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이 참관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전시회기간 과학연구과정에 얻은 경험들도 교환되였다.

6일에 진행된 폐막식에서는 조종기계연구소, 기계공학연구소, 레이자연구소, 리과대학을 비롯하여 성과를 이룩한 단위들과 과학자, 연구사들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

우리 학생들 제1차 벨랴꼬브컵 국제바야, 손풍금콩클에서

특등과 1등 쟁취

우리 학생들이 로씨야의 바슈꼬르또스딴공화국 수도 우파에서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된 제1차 벨랴꼬브컵 국제바야, 손풍금콩클에서 우수한 성적을 쟁취하였다.

세계적으로 재능있는 바얀, 손풍금연주가들을 찾아내고 민족음악을 널리 보급하는것을 목적으로 처음 열린 콩클에는 우리 나라와 로씨야, 벨라루씨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의 예술교육기관 교원들과 학생들, 예술인들 120여명이 참가하였다.

콩클은 나이에 따라 8개 부류로 나누고 독주와 안삼블로 승부를 가르는 방법으로 진행되였다.

대학생부류 바얀, 손풍금독주에 출연한 전영주학생은 높은 기교와 예술적기량을 요구하는 작품들을 바얀으로 훌륭히 연주하여 특등을 쟁취하였다.

윤혁인학생은 1등을, 최혁철학생은 2등을 하였다.

우리 학생들은 바얀3중주로 노래 《대흥단 삼천리》와 외국명곡들을 잘 형상함으로써 안삼블부류에 출연한 10개 조가운데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고 1등의 영예를 지니였다.

1일에 진행된 폐막식에서는 우리 학생들에게 안삼블부류 1등상장이, 전영주학생에게 독주부류 특등상장이, 윤혁인학생에게 1등상장이, 최혁철학생에게 2등상장이 수여되였다.

콩클심사위원장인 벨랴꼬브와 그네씬명칭 음악아까데미 바얀교수 씨로예쥬낀을 비롯한 음악전문가들은 조선학생들이 높은 실력을 과시하였다고 하면서 그들을 축하해주었다.

라오스특명전권대사 공화국창건 38돐에 즈음하여

연회 마련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창건 38돐에 즈음하여 끼얏띠싹 깨오반딧 주조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6일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섭동지와 조선라오스친선협회 위원장인 차희림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승두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근광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박길연 외무성 부상, 김진범 대외문화련락위원회 부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초대되였다.

라오스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절세의 위인송가와 사회주의수호전

1990년대는 우리 조국력사와 인류사에 커다란 흔적을 남긴 년대이다.

력사적의미가 심오하고 인민의 사상감정이 비상했던것만큼 그 시대의 산물인 음악의 세계도 결코 평범할수 없는것이다.

검은 구름을 꿰지르며 이 땅을 비쳐준 해살과도 같이 상상못한 최악의 역경을 헤쳐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승리의 신심과 희망을 안겨주고 힘과 용기가 되여준 잊을수 없는 노래들의 중심에는 절세의 위인이신 김정일장군님을 우러러 부른 송가들이 숭엄히 자리잡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탁월한 선군혁명령도로 조국과 혁명, 시대와 력사앞에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습니다.》

사회주의를 한다고 하던 동유럽나라들에서 붉은기가 내리워지고 인민들의 탄식소리가 비통하게 행성을 울리던 1990년대초 우리 조선에서는 위인흠모의 노래, 투쟁과 신념의 목소리가 힘차게 울려나왔다.

《김정일동지는 우리의 최고사령관》, 《무장으로 받들자 우리의 최고사령관》, 《그이를 보위하여 총폭탄되리》, 《축원의 꽃보라》, 《경례를 받으시라》…

1991년 12월 24일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력사의 환희와 더불어 울려퍼진 이 노래들은 준엄한 정세속에서도 사회주의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드시고 조선혁명을 이끌어가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러러 우리 군대와 인민이 터친 충정의 메아리였다.

사회주의수호전의 서곡과도 같은 그 노래들과 함께 승화된 시대의 사상감정은 1993년 우리 조국이 단신으로 미제의 날강도적인 핵공갈을 쳐물리친 영웅적투쟁과정에 더욱 높이 분출되였다.

세계가 숨을 죽이고 바라본 조미핵대결에서 백두령장의 무비의 담력과 슬기로 오만한 제국주의 피수를 무릎꿇게 하시고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영예롭게 수호하신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은 곧 우리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시라는 절대적인 신념이 온 나라 강산에 차넘쳤다.

이 시기 창작된 노래들인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 《당신만 있으면 우리는 이긴다》,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와 같은 노래들에는 바로 그러한 인민의 사상감정이 맥맥히 흐르고있다.

1990년대는 우리 조국력사에 가장 준엄한 고난의 행군을 기록한 년대이다. 엄혹한 력사의 언덕을 헤쳐온 우리 인민의 극적인 체험과 지금도 어제런듯 방불한 그 가슴에이는 광경들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 않을수 없는 고난의 행군!

아마도 그에 대한 추억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서거라는 청천벽력같은 비보에 접한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흘리고흘린 피눈물에서부터 시작될것이다. 지금껏 누려온 행복과 모든 영광이 결코 타고난것이 아니였음을, 그것은 바로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이 안겨준 수령복이였음을 뼈저리게 체험하는 날과 달들이 흘러가고있었다. 원쑤들은 고립과 압살의 광풍을 몰아왔으며 우리 사상, 우리 제도의 붕괴를 기정사실화하고있었다. 스치는 바람결처럼 가벼운 유혹에도 마음의 마지막 탕개가 끊어질듯싶은 최악의 시련이였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우리는? 우리 사회주의는? 이라는 운명적인 물음이 제기될수도 있었던 준엄한 그 시각 어버이수령님 물려주신 붉은기를 억세게 추켜드시고 사회주의조국수호의 최전방에 결연히 나서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곧 우리 운명의 하늘이시였다.

선군의 총대를 높이 들어 자주적인민이 나아갈 진로를 밝혀주시고 결사의 의지로 력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전대미문의 난국을 헤쳐나가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자기의 운명과 미래를 의탁한 천만군민의 마음은 그대로 《장군님과 붉은기》, 《하늘처럼 믿고 삽니다》,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와 같은 명곡들의 가사가 되고 곡조가 되여 울려퍼졌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으로 떠받드신 선군령장의 눈물겨운 모습이 어려있는 오성산의 칼벼랑길과 생사를 기약할수 없었던 초도에로의 풍랑사나운 배길, 사랑하는 군대와 인민을 뒤에 두시고 원쑤들의 총구앞에 주저없이 나서시였던 최전연시찰의 자욱자욱을 따라걸으며 공훈국가합창단의 근위가수들은 방사포의 일제사격소리와도 같이 그 우렁차고 지칠줄 모르는 열광의 울림을 터쳤다.

《장군님 여기는 최전연입니다》, 《장군님은 빨찌산의 아들》, 《장군님은 위대한 수호자》,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 《장군님은 승리의 기치》와 같은 노래들은 그대로 원쑤의 아성에 퍼붓는 불소나기가 되였고 승리를 향해가는 우리 보폭의 나래가 되였다.

백두산장군의 전설적행로를 따라 조선은 나아갔다.

장구한 인류력사에서 아직 그 어느 나라의 군대와 인민도 보고 들은적이 없는 거대한 도전을 물리치며 1990년대의 진군길을 승리로 떨쳐온 조선의 힘을 알려거든 《조선의 장군》과 같은 절세의 영웅찬가를 다시 들어보라고 우리는 오늘 당당히 말하게 된다. 자주적대와 신념이 투철하고 인간의 정의와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서라면 지구도 들어올릴 담대한 배짱을 지니신분, 천번만화하는 지략과 단호한 결단으로 온갖 원쑤들의 그 어떤 모략과 위협도 순간에 날려버리시는 천출명장을 모시였기에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와 인민이 되여 력사의 기적을 창조할수 있은것이였다.

이 나날 세월의 눈비와 천만고생을 다 겪으시며 전선길, 현지지도길을 종횡무진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며 우리 인민이 목메여 부른 《장군님과 함께라면》, 《장군님 찬눈길 걷지 마시라》, 《아버지는 전선에 계신다》와 같은 노래들은 지쳐쓰러졌다가도 기어이 다시 일어나게 하는 불굴의 힘을 낳았으며 령도자와 인민이 한전호에서 육친적사랑보다 더 뜨겁고 진실한 전우애로 뭉쳐 싸웠음을 보여주는 감동깊은 시대의 증거로 되고있다.

위대한 선군령장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령도밑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1990년대 말엽 마침내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고 강성대국건설의 도약대우에 우뚝 올라 새 세기의 려명을 마중해가는 경이적인 현실을 맞이하게 되였다.

파란많은 민족사와 더불어 한 세기의 거창한 력사를 총화하게 되는 그 분수령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심장으로 절감한 백승의 진리를 노래 《위대한 내 나라》에 담았다.

땅이 넓고 인구가 많아 큰 나라가 아니라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모시였기에 필승불패하는 위대한 나라가 있음을 그리고 그런 나라의 군대와 인민된 긍지와 자랑을 온 세상을 향하여 목청껏 노래한것이였다. 력사의 모진 시련을 이겨내며 우리는 절세의 위인의 탁월한 령도를 따라 충정의 송가를 삶과 투쟁의 주제가로 힘차게 부르며 전진하는 군대와 인민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귀중한 진리를 새겨안았다.

자기 삶의 한 부분과도 같이 그렇듯 심장깊이 새겨진 위인칭송의 노래들을 더욱 높이 부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 따라서 온 영광넘친 혁명의 길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따라 끝까지 가고갈것이다.

리 건

고려약생산성과 확대

보건성 고려약생산관리국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뜻깊은 올해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 고려약생산에서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와 호소문에서 제시된 과업관철을 위해 높은 헌신성을 발휘하여온 이들은 11월말까지 관리국적인 년간계획을 100%로 수행하였다.

관리국에서는 고려약의 엑스화와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 대중약품, 상비약품생산을 늘이였다.

평양시고려약생산관리국에서 년간계획을 105%로 완수하는 자랑을 떨치였다.

약초생산기지들을 잘 꾸린 평천, 모란봉, 동대원고려약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고려약생산의 엑스화비중을 높이면서 년간계획수행에서 모범을 보이였다.

자강도고려약생산관리국에서 자기 지방에 풍부한 약초자원을 리용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효능높은 고려약들을 많이 생산하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자옥이 어려있는 강계고려약가공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년간계획을 130%로 결속하였다.

고려약생산부문에서 전국의 본보기가 되라고 하신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을 받들고 강계고려약공장에서는 최신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려 높은 생산실적을 기록하였다.

함경북도고려약생산관리국산하 공장들에서도 약초원천을 늘이고 설비들에 대한 관리를 잘하여 생산을 부쩍 늘이였다.

회령고려약공장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공장의 무균화, 무진화를 실현하고 약품의 질을 높이면서 년말생산전투를 힘있게 벌려 계획을 124%로 완수하였다.

황해북도, 황해남도고려약생산관리국에서도 질좋은 고려약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함으로써 년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모범을 보이였다.

보건성 고려약생산관리국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더 높은 성과로 경제강국건설과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일념안고 고려약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어버이장군님을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따르는 인민의 뜨거운 마음

12월의 만수대언덕에서

한송이 또 한송이 그리움의 꽃송이들이 삼가 놓여진다. 한다발 또 한다발 못 잊을 회억과 격정의 꽃다발들이 그윽한 향기를 풍긴다.

만수대언덕!

무궁한 세월과 더불어 언제나 천만군민의 마음속에 높이 솟아있어 어디서나 보이는 언덕, 누구나 뜨거운 심장속에 안고사는 성스러운 언덕에 인민의 끝없는 충정과 경모의 정이 대하가 되여 굽이쳐흐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선군혁명의 험난한 초행길을 헤치시며 민족자주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시고 나라의 강성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담보하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실록과 불멸의 업적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것입니다.》

사연도 깊은 언덕이다.

기쁠 때도 괴로울 때도, 행복한 나날에도 시련의 나날에도 언제나 심장속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잡고있어 한없이 경건한 마음으로 우러르면 절세의 위인들을 높이 모신 무한한 행복과 긍지감으로 하여 가슴높뛰고 산악도 떠옮길 힘과 용기에 넘치는 력사의 이 언덕!

돌이켜보면 만수대언덕은 우리 혁명의 력사의 갈피마다에 아로새겨진 경이적인 전변, 민족적경사들을 자기의 넓은 자락에 모두 안아 소중하고 뜨거운 추억으로 간직하고있다.

우리 인민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이였던가.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낮이나 밤이나 불타오르던 절절한 념원은 정녕 어떤것이였던가.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몸가까이 뵈옵고 친근하신 음성을 단 한번만이라도 듣는것, 대원수님들께 마음속사연까지도 모두 아뢰이며 금옥같이 귀중한 가르치심을 심장에 새겨안고싶은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한생의 소원이였고 변함없는 념원이였다.

그래서이리라. 아침에도 저녁에도, 낮에도 밤에도 오르고 또 올라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을 삼가 뵈오며 희망과 신심, 열정과 긍지에 가슴부푸는것은.

하기에 조국을 멀리 떠날 때에도, 그리운 조국의 품에 다시 안길 때에도 우리 인민은 제일 먼저 이 언덕우에서 위대한 대원수님들께 충정의 보고, 그리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는것이 아니랴.

오늘도 우리 수령님께서와 장군님께서는 태양의 미소를 환히 지으시고 만수대언덕에 거연히 서계신다.

우러르면 한평생을 두고 사랑하신 천만자식들을 어서 오라 손저어 부르시는것만 같고 광명한 미래에로 손잡아 이끌어주시는것만 같아 사무치는 그리움과 한없는 경모의 마음을 안고 절세의 위인들께로 끝없이 달려가는 12월의 이 화폭!

아직도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커다란 상실의 아픔으로 새겨져있는 못 잊을 12월 만수대언덕을 찾는 사람들의 물결속에는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모습도 보인다.

가슴마다에 정히 안고온 붉은 꽃송이, 위대한 대원수님들께 삼가 인사를 드리고도 선뜻 옮기지 못하는 발걸음…

그들의 눈앞에 잊지 못할 그날의 감격이 가슴치며 안겨온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해인 주체100(2011)년 1월 한겨울의 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을 몸소 찾으시여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시고 친어버이의 사랑과 정을 부어주신 우리 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어찌 날과 달이 흐르고 해가 바뀐다 해도 잊을수 있으랴.

여러 실마다에 그쯘하게 갖추어진 각종 첨단설비들과 새로 개발된 생물공학제품들을 보시고 분원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최첨단을 돌파할데 대한 우리 당의 구호를 높이 받들고 과학연구사업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자랑찬 성과를 거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온 세상이 환하도록 웃으시던 어버이장군님!

이들처럼 높은 당성, 혁명성, 인민성을 지니고 우리 당의 최첨단돌파사상을 철저히 구현해나간다면 나라의 모든 부문을 짧은 기간내에 최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인민생활향상과 강성국가건설에서 획기적인 전변을 이룩할수 있다고 하신 장군님의 그날의 말씀은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 과학자, 기술자들의 심장마다에 한생토록 간직할 고귀한 지침, 인생의 좌우명으로 뜨겁게 아로새겨져있다.

인민을 제일 귀중히 여기시며 무슨 일을 하나 하여도 인민을 위한것이라면 최상최대의 평가를 안겨주시는 우리 장군님이시기에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는 과학기술적성과를 두고 그토록 기뻐하시며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한가슴에 받아안기에는 너무도 벅찬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신것 아니랴.

하기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터치는 심장의 웨침이 내 조국의 푸른 하늘가로 울려퍼진다.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믿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지혜와 정열을 아낌없이 바쳐가겠습니다!

이것은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의 과학자, 기술자들만이 아닌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충정의 목소리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신념과 의리의 대하가 더욱 세차게 굽이친다. 한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을 활화산같이 터치며 온 나라의 마음과 마음들이 12월의 만수대언덕으로 끝없이 오른다.

그렇다.

인민은 언제 어디서나 이 성스러운 언덕에 오를것이다. 분계연선도시에서 저 멀리 조국의 북변 산간마을에 이르기까지 우리 조국의 영원한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며 숭엄함과 아름다움의 절정인 력사의 이 언덕을 심장마다에 간직하고 절세위인들의 유훈을 활짝 꽃피우기 위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대를 이어 충직하게 받들어갈것이다.

이것이 만수대언덕과 더불어 12월에 다지는 천만군민의 불타는 맹세이고 드팀없는 의지이다.

본사기자 리 남 호

아침에도 저녁에도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한평생 오로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다 바치시면서도 자신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남기지 않으시고 순간의 휴식도 없이 초강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다가 달리는 렬차에서 순직하신 장군님과 같으신 그런 령도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땅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되고 저물어가는가.

동녘하늘이 희붐히 밝아올무렵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의 구내에 고요한 정적을 깨치며 인기척이 들려온다.

아직은 이른아침이건만 수많은 사람들이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현지지도사적비앞에 정중히 다가선다.

세월이 갈수록 더해만지는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현지지도사적비를 찾는것으로부터 하루일을 시작하는 리영실, 김수향, 리혜영동무를 비롯한 조사공들,

한자한자 비문의 글발을 우러르는 그들의 가슴마다에 여러차례나 공장을 찾으시여 로동자들에게 더 좋은 로동조건과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기 위해 그토록 마음쓰신 절세위인들의 자애로운 모습이 뜨겁게 안겨온다.

지금도 그들의 가슴속에는 네해전 그날의 감격이 소중히 간직되여있다.

꿈결에도 뵙고싶은 어버이장군님을 자기들의 일터에 모시였던 그 영광과 행복을 어찌 세월이 흐른대도 잊을수 있으랴.

그날 찬바람 몰아치는 대소한의 강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혁명적대고조로 들끓고있는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현대화된 생산공정들과 공장구내를 돌아보시면서 공장의 로동계급이 질좋은 명주실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 눈부신 혁신을 일으키고있는데 대해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리고 모든것이 부족한 속에서 해마다 맡겨진 계획을 넘쳐 수행하면서도 공장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훌륭한 위생문화적환경을 마련한 그들의 성과와 위훈을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어버이장군님의 그 사랑, 그 믿음을 가슴마다에 깊이 새기고 지난 기간 공장의 로동계급은 인민들에게 더 좋은 옷을 해입히려는 당의 뜻을 받들어 창조와 혁신의 한길로만 줄달음쳐왔다. 증산투쟁의 불길속에 공장에서는 년간계획완수자들과 혁신자들의 대오가 늘어만 갔다.

그 나날 리영실동무와 김수향동무는 전국경공업대회와 청년절경축행사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을 지니였다.

어느덧 대동강반에서 간간이 들려오는 물오리떼의 깃치는 소리와 함께 정가로운 비질소리가 공장구내에 울려퍼진다.

사적비관리사업을 마친 조사공들은 새날의 위훈을 약속하며 발걸음도 드높이 일터로 향한다.

어버이장군님을 절절히 그리고 따르며 장군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관철해나갈 마음속맹세를 다진 그들은 오늘도 더 많은 비단실을 뽑은 자랑을 안고 절세위인들의 현지지도사적비앞에 다시 모여 보람찼던 로동의 하루를 뜻깊게 총화하리라.

어찌 그들만이랴. 잊지 못할 12월의 나날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의 전체 로동계급, 아니 온 나라 천만군민이 어버이장군님을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고 그이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할 굳은 각오로 심장을 끓인다.

내 조국의 12월의 하루하루는 이렇게 흘러간다. 그리움과 맹세, 보답과 실천으로 밝아오고 저물어가며.

본사기자

아름다운 꽃향기속에 모시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모신 금수산태양궁전을 영원한 태양의 성지로 빛나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영원한 태양의 모습으로 계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 이 세상 산과 들의 모든 아름다움을 다 펼쳐드리고 언제나 꽃향기속에 모시고 싶은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절절한 념원이다.

하기에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천세만세 길이 받들어모실 충정의 마음들이 오늘도 금수산태양궁전수목원으로 끝없이 달려오고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절절히 그리고 따르는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의 마음을 그 어디에도 비길수 없듯이 금수산태양궁전 수목원이 꾸려진 때로부터 오늘까지 태양의 성지에 뿌리를 내린 지성어린 나무와 화초를 어찌 다 헤아릴수 있으랴.

지난 11월 농근맹중앙위원회 일군들이 안고온 수천그루의 나무모와 수많은 꽃씨, 꽃뿌리에는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인민들의 먹는 문제해결을 위해 마음써오신 대원수님들을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모시려는 온 나라 농업근로자들의 백옥같은 마음이 어려있다.

지난 봄 여러차례에 걸쳐 수많은 꽃뿌리와 나무모, 판리도구를 안고 꿈결에도 그리는 태양의 성지로 달려온 황해북도 청년동맹위원회 일군들, 그들이 안고온 하나하나의 꽃뿌리와 나무모마다에도 태양만을 따르는 해바라기마냥 절세위인들을 영원한 해님으로 받들어모시려는 도안의 청소년들의 지성이 뜨겁게 깃들어있다. 해마다 태양의 성지를 더 훌륭히 꾸리기 위한 사업에 아낌없는 지성을 바쳐가고있는 초산군 와인고급중학교 교원들과 학생들은 올해에도 많은 전나무와 잣나무모를 안고왔다.

이들만이 아닌 어랑군 어랑초급중학교 로금혁학생, 모란봉구역 전승2동 1인민반의 김선비녀성과 그의 손녀인 보통강구역 경흥초급중학교 박예향학생을 비롯한 전국각지 수많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올해 금수산태양궁전 수목원에 깨끗한 충정의 마음을 아낌없이 바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푸른 숲 우거지고 온갖 꽃 만발한 태양의 성지에 길이 모시려는 온 나라 천만군민의 절절한 념원과 지향은 이렇듯 날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더욱더 절절해지고있다.

본사기자 오 은 별

‖ 그리움으로 잠 못 드는 수도의 밤 ‖

수도의 거리에 불빛이 흐른다.

깊어가는 이 밤도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잠 못 드는 인민의 불타는 마음인양 꺼질줄 모르는 12월의 불빛,

휘황한 그 불빛에 한평생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신을 깡그리 바치시여 마련해주신 인민의 천만가지 행복이 빛나고 그이께서 인민의 가슴마다에 심어주신 눈부신 래일의 꿈이 빛나고있는것이 아닌가.

아름다운 수도의 불빛,

그 불빛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이 하늘아래, 이 땅우에 대대손손 복락을 누려갈 인민의 락원,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기어이 일떠세우고야말 천만군민의 굽힘없는 신념과 의지, 불같은 맹세도 어리여있다.

정녕 우리는 잠들수 없다. 어버이장군님의 필생의 뜻인 강성국가의 눈부신 모습을 현실로 펼치기 전에는.

그리움과 맹세로 뜨거운 수도의 불빛이여, 더욱 휘황히 빛나라.

원대한 리상과 포부, 지칠줄 모르는 사색과 탐구, 불같은 열정을 담아싣고.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신 충 혁

순결한 량심을 바쳐

박천군 읍 171인민반에서 살고있는 김정석동무와 안해 전영옥동무는 절세의 위인들을 충정으로 높이 모시기 위한 사업에 순결한 량심을 바쳐가고있다.

지난해 1월 어느날 그들부부는 한생의 소원이 풀린것만 같은 커다란 감격과 기쁨에 휩싸이게 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특별보도에 접하였던것이다. 그날 밤 그들은 자정이 깊도록 잠을 이룰수 없었다.

너무도 뜻밖에 어버이장군님을 잃고 가슴을 치며 오열을 터뜨리던 나날 인민을 위한 사랑의 기념비들을 수풀처럼 일떠세워주신 장군님께서 자신을 위해서는 동상 하나 남기지 않으셨다는 가슴치는 사실앞에서 더욱더 비분에 젖었던 우리 인민이 아니던가.

그때부터 그들의 마음은 멀리 평양의 만수대언덕으로 끝없이 달리였다.

그들은 가정에서 기르던 집짐승을 비롯하여 수많은 지원물자를 안고 평양으로 향하였다.

여러차례에 걸친 성의있는 지원사업은 어버이장군님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기 위한 사업에 참가한 일군들과 건설자들에게 커다란 고무적힘을 안겨주었다.

그후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우러르며 그들부부는 절세위인들을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기 위한 사업에 한생을 바쳐갈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였다.

그 결의를 실천해나가는 나날 그들은 금수산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더욱 훌륭히 꾸리기 위한 사업과 군소재지에 영생탑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에 뜨거운 충정을 바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김정석, 전영옥동무들의 소행을 보고받으시고 은정어린 감사를 보내주시였다.

본사기자

충정으로 이어진 빛나는 삶

룡성구역 룡문동에 살고있던 고석춘전쟁로병에 대한 이야기

조국앞에, 후대앞에 참되게 산 생이란 어떤것인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정과 의리를 일편단심으로 간직하고 한생을 빛나게 산 고석춘전쟁로병의 삶이 바로 여기에 대답을 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고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물려주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적의무이고 숭고한 도덕의리이다.》

얼마전 룡성구역 룡문동 49인민반에 살고있는 마어금녀성의 집을 찾았던 우리는 출입문에 붙어있는 문패를 보며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문패에 《고석춘》이라는 이름이 새겨져있었던것이다. 고석춘전쟁로병이 세상을 떠난지도 어느덧 한해가 가까와오고있지만 지금도 그의 이름이 새겨져있는 문패, 거기에는 필경 사연이 있을것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조용히 출입문을 두드렸다.

고석춘전쟁로병의 안해 마어금녀성이 우리를 맞아주었다.

문패의 사연을 묻는 우리에게 마어금녀성은 젖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지금도 남편을 못 잊어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사람들의 가슴속에 지워지지 않는 모습으로 새겨진 고석춘전쟁로병의 지나온 생에 대해 한시바삐 알고싶은 충동을 누를길 없었다.

아늑하게 꾸려진 살림방에 들어서니 마침 고석춘전쟁로병의 막내딸인 고은화동무와 그의 남편도 와있었다.

우리는 마어금녀성을 통해 고석춘전쟁로병의 지나온 생활을 들을수 있었다.

고석춘은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수난의 시기에 홍원군의 가난한 농사군가정에서 태여났다.

나라잃은 식민지민족의 불우한 처지, 찬서리처럼 들씌워지던 모진 가난과 학대, 이것이 그가 자라면서 눈물과 함께 감수해야만 했던 현실이였다.

아버지가 들려주는 백두산의 장수별에 대한 이야기는 어린 고석춘의 가슴속에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흠모심이 뜨겁게 자리잡게 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나라를 찾아주신 다음에야 고석춘은 진정한 삶의 희열을 맛볼수 있었다.

학교에 울려퍼지는 글읽는 랑랑한 소리, 가정에 넘치는 행복의 웃음소리, 새 조국건설로 약동하는 현실을 대하며 고석춘은 어버이수령님께서 계시기에 오늘의 행복도, 아름다운 미래도 있다는 진리를 똑똑히 깨닫게 되였다.

미제침략자들이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왔던 준엄한 시기에 고석춘은 군복을 입고 전선으로 달려나갔다. 하나밖에 없는 조국, 어버이수령님의 그 품을 목숨바쳐 지킬 맹세를 안고 고석춘은 수많은 전투마다에서 용맹을 떨치였다.

어느날 전투에서 치명상을 입고 어느 한 전상자병원으로 후송되였던 그는 침상에서 전승의 소식을 들었다.

퇴원하는 날 의료일군들은 그에게 몇해동안 안정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고석춘은 고개를 저었다.

《그때 남편은 의료일군들에게 〈제가 어떻게 가만히 앉아 나라의 혜택이나 받으며 살겠습니까. 희생된 전우들의 몫까지 합쳐 힘껏 일하는것이 이제부터 내가 수행해야 할 전투임무입니다.〉라고 말했다더군요.》

마어금녀성이 그때의 근엄했던 고석춘전쟁로병의 얼굴모습을 재현해보이며 하는 말이였다. 그러면서 그는 남편은 한번 결심하면 기어이 실천하고야마는 성격이였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전상자병원을 나선 고석춘은 제대된 후 민청(당시)일군을 거쳐 농업부문 일군으로 일하였다.

농업과학원 농업과학전시관 관장으로 사업하던 나날에 그는 우리 인민들의 먹는 문제해결을 위해 어버이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얼마나 크나큰 로고를 바쳐오시였는가를 더욱 가슴깊이 절감하였다.

하기에 전시관을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념원을 더욱 활짝 꽃피우는데 이바지하는 교양거점이 될수 있게 훌륭히 꾸리기 위해 온갖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치였다.

《아버지는 늘 우리 자식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어버이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만 살아야 한다고 당부하군 하였습니다. 매일 〈로동신문〉에 실린 기사의 내용들을 알려주면서 당의 목소리를 하루라도 듣지 않으면 마음에 공백이 생긴다고, 때식을 건느는 일은 있어도 이 일에서는 번지는 법을 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고은화동무의 말을 듣고있던 그의 남편인 리정산동무가 품속에서 자그마한 수첩을 꺼내들었다.

《제가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니던 날 아버님이 넘겨준 수첩입니다.

수첩에는 당을 깨끗한 량심으로 받드는 길에서 좌우명으로 삼아야 할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이 또박또박 적혀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수십년이나 몸에 품고다니면서 사업과 생활의 거울로 삼은 이 수첩을 펼쳐보며 저는 늘 당을 받드는 마음에 자그마한 티도 끼지 않았는가 돌이켜보군 했습니다.》

수첩장을 번져보는 우리의 눈앞에 당과 수령에 대한 백옥같은 충정을 간직하고 한생을 오직 곧바르게만 걸어온 고석춘전쟁로병의 인생길이 감동깊게 밟혀왔다.

이때 방안으로 룡문동사무소 일군인 라길호동무가 들어섰다.

《지나가던 길에 고석춘전쟁로병동지가 생각나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서두를 뗀 라길호동무는 언제인가 있었던 한가지 사실을 들려주었다.

낮부터 내리던 보슬비가 한밤에 접어들면서 소낙비로 바뀌더니 세찬 바람까지 불어쳤다.

동에 자리잡고있는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로 급히 달려갔던 라길호동무는 굳어진듯 서버렸다.

고석춘전쟁로병이 흠뻑 젖은 모습으로 비물이 새는 곳이 없는가를 깐깐히 살펴보고있었다. 얼마전부터 몸이 불편하여 치료를 받고있던 고석춘전쟁로병이였다.

뜨거운것을 삼키며 그의 손을 잡던 라길호동무는 흠칫 놀랐다. 심한 고열이 난다는것을 대뜸 느낄수 있었다.

《불덩어리같은 몸으로 어쩌자고…》

이렇게 말끝을 흐리는 라길호동무를 바라보며 고석춘전쟁로병은 애써 미소를 지어보이였다.

《피눈물을 흘리며 다진 맹세를 숨이 지는 마지막순간까지 끝까지 지켜야 할게 아닙니까.》

청천벽력같은 비보에 접했던 그 시각 전사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고 가슴을 치며 남은 생이나마 우리 장군님께서 바라시던대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충정을 다해 받들겠다고 심장의 맹세를 다지고 또 다지던 고석춘전쟁로병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해 전승절경축행사에 참가한 전쟁로병대표들과 함께 찍으신 기념사진이 모셔진 《로동신문》을 보고 또 보며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계시기에 1950년대의 승리의 력사는 영원히 이어질것이라고 확신에 넘쳐 말하던 고석춘전쟁로병의 얼굴이 눈에 선하다고 라길호동무는 흥분된 어조로 이야기했다.

생을 마감짓는 순간에 인간은 지나온 나날을 돌이켜본다고 했다.

허나 고석춘전쟁로병은 앞날에 대해 생각하였다.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받들어모시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밑에 더욱더 부강번영할 조국의 창창한 미래를 그려보았다.

그래서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이 자리잡고있는쪽을 오래도록 바라보며 안해와 자식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나는 지금껏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만을 굳게 믿고 충정으로 받들기 위해 적은 힘이나마 바치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구만.

…

그 길을 이제는 당신이 이어가고 또 너희들이 이어가야 한다. 우리 가정의 운명도 미래도 그 길에 있음을 잊지 말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원수님을 충정으로 받들어모시는 사업에 언제나 앞장서길 바란다.…》

고석춘전쟁로병은 이렇게 사람들의 기억속에 살아도 죽어도 충신의 한모습으로 자리잡고있는것이다.

※ ※

얼마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고석춘전쟁로병의 고결한 충정에 대한 소행자료를 보고받으시고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인간이 남길수 있는 가장 고귀한 유산은 정신적유산이다. 후대들이 가슴에 새기고 곧바로 이어갈수 있는 불변의 신념을 물려줄 때 그 생은 영원한것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불같은 충정과 의리를 혁명의 계주봉으로 넘겨준 우리 혁명의 전세대들, 그 영생의 대오속에 고석춘전쟁로병의 이름도 빛나고있다.

본사기자 조 경 철

대중체육활동을 힘있게 벌린다

자강도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적으로 누구나 다 운동을 하는 분위기를 세우고 대중체육사업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 앞당길데 대한 당의 원대한 구상을 높이 받들고 자강도에서 대중체육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도의 근로자들이 건장한 몸으로 강성국가건설에 이바지할수 있게 대중체육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도체육지도위원회에서는 도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누구나 대중체육활동에 적극 참가하도록 지도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에서는 매주 일요일마다 강계시의 경기장에서 도급, 시급기관들과 공장, 기업소, 대학들호상간 다양한 체육경기들을 실속있게 조직하여 체육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높여주고있다.

도의 책임일군들이 대중체육사업을 강화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풀어주고있다.

강계시에서는 체육공원을 새로 꾸리고 어린이로부터 로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리용할수 있는 운동기구를 그쯘히 갖추어놓았으며 장자강, 북천에 야외수영장도 건설해놓았다. 그에 맞게 도에서는 강계시의 공장, 기업소들과 새로 꾸린 체육공원, 수영장에 운동기재와 운동복을 마련하여 보내주었다.

도에서는 실내축구, 롱구, 배구, 탁구를 비롯한 종목별에 따르는 체육경기는 물론 집단체조도 진행할수 있는 현대적인 체육관건설을 적극 내밀고있다.

도인민위원회의 해당 부서 일군들은 시, 군들에 자주 나가 체육시설들을 더 잘 꾸리고 적극 리용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대중의 체육열기를 부쩍 끌어올리고있다.

얼마전 도에서는 시, 군대항경기가 진행되였다.

성간군, 전천군의 체육관들에서는 남녀배구, 롱구경기가, 강계시의 경기장과 청년공원에서는 축구, 씨름, 바줄당기기, 태권도, 널뛰기, 그네뛰기경기가 시, 군에서 선발된 선수들과 관람자들의 커다란 관심속에 진행되였다. 대항경기에는 시, 군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을 비롯한 많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시, 군들에서 올라온 응원자들의 열렬한 응원이 대항경기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경기에서는 롱림군, 성간군, 희천시, 전천군, 우시군, 만포시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평시에 련마한 체육기술을 남김없이 보여주어 우수한 성적을 쟁취하였다.

도에서는 씨름, 바줄당기기와 같은 민족체육경기와 우리 민족의 정통무도인 태권도를 장려하고 더욱 발전시키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고있다.

대중체육활동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는 속에 일군들과 근로자들모두가 건강한 몸으로 강성국가건설에 적극 참가하고있다.

특파기자 동 세 웅

남조선집권세력의 《유신》독재부활책동과 파쑈적 탄압책동을 분쇄하자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성명, 부의장 담화 발표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11월 25일 《남조선집권세력의 〈유신〉 독재부활책동과 파쑈적탄압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에 총궐기할것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지금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현 집권세력의 극악한 《유신》 독재부활책동과 진보민주세력에 대한 탄압말살책동은 재중조선인들의 분노심을 극도로 폭발시키고있다고 지적하였다.

력사의 오물로 이미 시궁창에 처박혔던 과거 《유신》 독재의 잔당들이 현 보수집권세력의 등장과 함께 기여나와 《유신시대가 더 좋았다.》느니, 《독재가 필요하다.》느니 뭐니 하며 찬미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뿐만아니라 통합진보당과 전국교직원로동조합, 전국공무원로조를 비롯한 남조선의 진보적 정당과 통일운동단체들 등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압에 광분하고 있다고 단죄하였다.

해외동포들은 수십년전 악명높은 《유신》 독재 《정권》이 남조선인민들은 물론 해외에 살고있는 동포들에게까지 마수를 뻗치고 어떤 온갖 불법무법의 잔인한 악행과 만행들을 저질렀는가를 잊지 않고있다고 밝혔다.

남조선에서 이러한 《유신》 독재가 부활되는것은 21세기의 비극이고 민족의 수치가 아닐수 없다고 비난하였다.

더우기 과거 《유신》 독재자가 《용공척결》을 떠들며 통일운동탄압에 광분하던 그 본때대로 오늘날 《유신》 잔당들이 《종북척결》을 부르짖으며 《유신》 독재부활에 열을 올리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지금 보수집권세력의 광란적인 파쑈적폭거와 그에 격렬히 항거하는 남조선인민들의 대중적투쟁에 의해 남조선은 말그대로 민주수호냐 《유신》 독재부활이냐 하는 갈림길에 놓여있다고 주장하였다.

전체 재중조선인들은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고 하면서 그들이 사회의 민주화와 《유신》 독재부활반대투쟁에 보다 과감하게 떨쳐나서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남조선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

차상보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이 11월 28일 《온 겨레는 하나로 뭉쳐 남조선괴뢰패당의 〈유신〉 파쑈독재아성을 짓부셔버리자》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전체 재중동포들은 온갖 사기와 부정협잡으로 권력을 강탈하고 남조선의 진보민주세력에 대한 파쑈적탄압소동에 발광적으로 매달리고있는 괴뢰패당에 대한 치솟는 민족적의분을 금치 못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남조선괴뢰패당은 집권하자마자 지난 시기 《유신》 파쑈독재패당처럼 추악한 정치적야욕으로부터 통합진보당과 전국교직원로동조합, 전국공무원로조를 비롯한 진보정당, 단체들을 《종북》, 《리적》으로 몰아 강제로 해산시키려고 획책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괴뢰패당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탄압에 광분하는것은 모략으로 권력의 자리를 가로챈 추악한 선거개입사건에 쏠린 여론의 이목을 다른데로 돌리고 저들의 친미사대적이며 반인민적인 통치체제와 장기집권에 방해가 되는 모든 진보민주세력을 모조리 숙청해버리려는데 그 흉악한 목적이 있다고 까밝혔다.

전체 재중동포들은 온 겨레의 규탄에도 불구하고 《유신》 파쑈독재통치를 재현시키기 위해 미쳐날뛰는 남조선괴뢰패당의 망동을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진보적발전을 저해하는 용납 못할 반민주적범죄행위로 락인하고 이를 준렬히 단죄한다고 하면서 담화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민주와 파쑈독재가 절대로 량립될수 없다는것은 력사가 남긴 피의 교훈이다.

지난 시기 박정희역도의 파쑈독재적인 《유신정권》은 너절한 모략수법으로 인민혁명당사건과 민청학련사건, 남민전사건, 동부베를린사건 등 각종 간첩단사건들을 조작하고 남조선에 살벌한 폭압분위기를 조성하였을뿐아니라 수많은 통일애국인사들과 무고한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고문, 학살하였다.

그들은 자주와 민주를 바란다고 하여 《리적》, 《용공》으로 몰려 생죽음을 당해야 했고 통일을 주장한것으로 하여 《간첩》의 루명을 쓰고 교수대의 이슬로 사라져야 했다.

오늘 남조선의 엄혹한 현실이 보여주다싶이 박근혜패당의 파쑈적폭거는 박정희 《유신정권》의 그 암흑의 독재시대를 방불케 하고있다.

매국과 분렬, 파쑈를 일삼은 《유신》 독재의 기질을 그대로 이어받은 현 괴뢰도당은 저들의 잔명을 부지하기 위해 피눈이 되여 미쳐날뛰고있다.

이러한 파렴치하고 악랄한 파쑈적폭압책동을 짓부시지 못한다면 남조선에 또다시 처절한 파쑈독재시대가 재현되게 될것이라는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

《유신》 독재가 되살아나는것을 막아야 남조선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온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도 실현될수 있다.

남조선의 모든 진보세력들은 련대련합하여 괴뢰패당의 《유신》 독재부활책동과 진보민주세력에 대한 파쑈폭압공세를 반대하는 대중적인 투쟁을 더욱 세차게 벌려나가야 한다.

우리 전체 재중동포들은 해내외의 온 겨레와 함께 사회적진보와 민주실현, 자주통일을 위한 투쟁에 일떠선 남조선 각계층과 굳게 손잡고 《유신》 독재의 아성과 진보민주세력말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이다.

본사기자

제손으로 제눈 찌른 가련한 주구

세계 여러 나라들을 대상으로 비밀도청을 일삼아온 미국의 주권침해, 인권침해행위의 내막이 갈수록 더욱 드러나면서 세상사람들의 경악과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의 비밀도청행위에 남조선괴뢰들이 적극 가담한 사실이 폭로되여 내외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이 비발치고있다. 폭로된데 의하면 괴뢰정보원은 미국가안전보장국과 미중앙정보국을 비롯한 외국의 정보기관들에 부산해저통신망을 제공하는것으로 여러 나라들의 국가수반급전화와 인터네트에 대한 비밀도청을 지원하였다고 한다.

지금 괴뢰패당은 비밀도청행위의 공범자로서의 정체가 폭로된데 당황하여 미국의 도청문제를 《지나치게 쟁점화할 필요》는 없다느니 뭐니 하면서 여론이 확대되는것을 어떻게 하나 막아보려 하고있다. 허나 그것은 이미 깨진 사발이다.

괴뢰정보원이 미국의 비밀도청행위에 직접 가담하여 머슴군노릇을 한것은 식민지주구로서 달리는 할수 없는 필연적현상이다. 세상이 다 알고있는바와 같이 남조선에 미국의 마수가 뻗치지 않은 곳이란 없다. 군통수권까지도 미국에 내맡기고 상전의 요구라면 인민들의 혈세와 생활터전까지 가리지 않고 섬겨바치는 괴뢰들일진대 통신망제공인들 마다하겠는가.

괴뢰들이 상전에 아부추종한 대가로 차례진것이란 세계적인 비난과 조소, 항의와 규탄뿐이다. 괴뢰패당은 청와대도 미국에 도청당하였다는 사실이 전해졌지만 물먹은 벙어리시늉을 하다가 마지못해 미국에 설명을 요청하는 놀음을 벌리였다. 하지만 괴뢰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미국의 태도에 주접이 들어 주저앉고말았다. 남조선에 《대통령》이나 《정부》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다 미국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그러니 상전이 주구에게 무슨 설명을 한단 말인가.

괴뢰당국이 제 염통이 뽑히우는줄도 모르고 상전에게 아부추종하여 다른 나라들에 대한 비밀도청에 가담한것은 실로 바보들이나 할짓이다. 그것을 통해서도 남조선괴뢰들이야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식민지주구, 침략의 돌격대, 전쟁하수인이라는것을 똑똑히 알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들이 주제넘게 그 무슨 《국격》을 론하고 《상식과 국제질서준수》를 떠드는것은 꿀불견이 아닐수 없다.

자주성은 꼬물만큼도 없이 외세의 지휘봉에 따라 움직이는 괴뢰들이 제아무리 《국격》을 운운해도 허수아비로서의 저들의 가련한 처지야 어디 가겠는가. 외세가 없으면 순간에 물먹은 담벽처럼 무너져내릴 괴뢰정권이 《정상회담》이니, 《동맹》이니 뭐니 하며 희떱게 놀아대는것도 가관이다.

남조선이 미국의 비밀도청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폭로되자 해당 나라들에서 현지괴뢰대사들을 호출하며 조사를 심화시키고있는가 하면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이로 하여 세계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도청행위를 감행하는 미국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며 그의 너절한 졸개노릇을 한 괴뢰패당은 톡톡히 망신만 당하고 비지땀을 흘리고있다.

앞에서는 다른 나라들과의 《신뢰》를 운운하고 뒤에 돌아앉아서는 상전의 앞잡이가 되여 남을 모해하고 해치기 위한 짝자꿍이를 하는것이 바로 남조선괴뢰들이라는것이 이번 사건을 통하여 날날이 드러났다. 말과 행동이 다른 괴뢰들을 과연 누가 믿을수 있으며 바로 보겠는가. 미국의 비밀도청행위에 대한 괴뢰들의 적극적인 가담행위는 제손으로 제눈을 찌른 격이 되고말았다.

괴뢰패당은 미국에 아부추종하는것이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어리석은짓이라는것을 알아야 한다.

최 철 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위원회 대변인담화

지금 남조선에서는 괴뢰극우보수패당의 《종북》몰이파쑈칼바람이 교육계에까지 몰아치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얼마전 괴뢰교육부는 남조선의 여러 출판사들이 만든 다음해 고등학교들에서 사용될 력사교과서의 우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문제시하면서 무조건 수정보충할것을 강박하였다.

괴뢰보수패당이 력사교과서에 반영할것을 강요하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 공화국에서 진행된 토지개혁을 헐뜯고 주체사상과 사회주의경제에 대해 중상하며 《천안》호와 연평도사건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우는 등 력사적사실을 외곡하고 동족대결을 고취하는 적대적이며 도전적인것들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과서집필자들은 물론 야당들과 진보민주세력들은 괴뢰패당의 책동을 《교과서집필에 대한 란폭한 권력람용》으로 준렬히 규탄하면서 《밀실심의로 력사를 흔들고있는 교육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강하게 반발해나서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패당은 《수정명령을 거부한 교과서에 대해 발행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내려야 한다.》느니 뭐니 하고 떠들면서 어떻게 하나 저들의 불순한 기도를 실현하려고 발광하고있다.

괴뢰패당의 이러한 책동은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반공화국적대의식을 주입시키고 력대 괴뢰정권의 동족대결과 파쑈독재의 력사를 합리화하려는 망동으로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또 하나의 용납 못할 정치적도발이며 신성한 교육사업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고 유린이다.

력사교육은 민족의 흥망성쇠와 관련되는 중대한 사업이다.

후대들에게 옳바른 력사관과 민족관을 세워주지 못하면 민족의 장래가 담보될수 없다는것은 장구한 력사의 교훈이다.

더우기 반세기이상 분렬의 비극을 겪고있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옳바른 력사교육문제는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도 매우 절실한 요구로 나서고있다.

그러나 괴뢰역적패당은 남조선 현대사학회의 사대매문가들과 어용출판사들을 내세워 반공화국적대의식을 고취하고 친미, 친일, 파쑈독재를 찬미하는 력사교과서를 집필, 출판하게 하는 한편 진보적인 력사학자들과 출판사들이 만든 력사교과서들을 악랄하게 헐뜯으면서 저들의 사대매국적이며 대결적인 본성에 맞추어 뜯어고치려 하는 날강도행위를 감행하고있다.

민족분렬의 비극을 겪으며 자라는 새 세대들에게 정의와 진리, 참다운 애국심을 심어주지는 못할망정 력사와 진실을 외곡하면서 동족에 대한 적대감과 사대매국을 강제고취하는 괴뢰패당이야말로 무지무도한 정치깡패들이고 동족대결과 친미, 친일, 파쑈에 환장한 역적무리들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위원회는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운 공화국의 찬란한 력사와 신성한 교육사업까지 동족대결과 식민지파쑈통치유지에 악용하고있는 괴뢰패당의 책동을 천추에 용납 못할 반인민족적범죄행위로 락인하고 이를 우리 전체 교육자들의 이름으로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객관적인 력사자료를 부정하고 진리와 정의를 가르쳐야 할 교단까지 마녀사냥으로 짓밟고있는 괴뢰패당의 책동은 남조선의 청소년들에게 반공화국적대감과 반동적력사관을 주입하여 남조선사회를 더욱 보수화, 파쑈화하고 《유신》독재를 기어이 부활시키려는 박근혜패당의 흉심을 그대로 드러낸것으로 된다.

력사는 누가 외곡한다고 해서 또 총칼로 강요한다고 하여 달라질수 없다.

우리 공화국의 긍지높은 력사는 조국과 민족과 더불어 인민들과 후대들에게 참다운 정의와 진리를 안겨주는 귀중한 교과서로 영원히 빛을 뿌리게 될것이다.

력사의 엄연한 진실을 오도하는 괴뢰패당은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우리는 남조선의 모든 진보적인 교육자들을 비롯한 각계층 인민들이 박근혜패당의 극악한 력사교과서개악놀음과 파쑈독재부활책동을 단호히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

주체102(2013)년 12월 6일
평 양

《보안법》 폐지를 주장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가 2일 악법인 《보안법》폐지를 주장하는 글을 실었다.

글은 《보안법》이 조작된 때로부터 65년이 되였다고 밝혔다.

일제식민지통치시기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도구였던 《치안유지법》을 본따고 전두환군사파쑈《정권》의 《반공법》까지 통합하여 개악된 《보안법》은 남조선의 민주화운동과 조국통일운동을 여지없이 탄압해왔다고 지적하였다.

오늘도 진보적인사들에게 《보안법》이 가해지고있다고 하면서 검찰이 부정선거로 권력을 타고앉은 현 《정권》퇴진을 주장한 천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 신부를 이 악법에 걸어 탄압하려 하고있는것이 그 대표적인것이라고 비난하였다.

현 《정부》가 《보안법》을 휘두르고 진보세력을 《종북》으로 몰아대며 탄압, 말살하려 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보안법》이 살아있는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글은 강조하였다.

신보수사상주입을 위한 교과서외곡책동에 항의

2일 남조선도처에서 각계층 인민들이 교과서들에 대한 수정지시를 내린 괴뢰당국의 부당한 처사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지난 11월 29일 괴뢰교육부당국은 남조선의 고등학교교과서들을 수정할것을 지시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해방후 공화국북반부에서의 민주개혁성과와 우리식 사회주의우월성을 외곡하거나 헐뜯는것으로 일관되였다.

뿐만아니라 과거독재를 미화하고 분렬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우는가 하면 《북인권문제》와 같은 반공화국대결을 고취하는 내용들을 보강하도록 한것을 비롯하여 얼마전 검정에서 통과된 보수세력의 교과서내용들이 그대로 포함되여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교직원로동조합, 력사정의실천련대 등으로 구성된 《친일, 독재미화 뉴라이트교과서검정무효화 국민네트워크》는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기자회견에서 단체는 교육부의 수정지시는 교육의 본질을 무시한 폭거로서 현 《정권》이 독재를 미화하는 《정권》임을 스스로 인정한것과 같다고 비난하였다.

이번 수정지시의 핵심은 한마디로 력사서술을 보수패당의 교과서처럼 하라는것이라고 하면서 마땅히 폐기되여야 할것을 기준으로 하는것은 학생들에게 신보수사상을 주입시키려는 뻔뻔스러운 행위라고 단죄하였다. 단체는 박근혜《정부》가 수정지시를 철회하고 보수세력의 교과서에 대한 검정승인을 취소할것을 요구하였다.

이날 괴뢰당국의 부당한 지시를 반대하는 투쟁은 부산과 대구, 대전, 울산,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등 전지역의 교육청앞에서 일제히 전개되였다.

해군기지건설반대투쟁 참가자들에 대한 탄압을 규탄

남조선의 참여련대가 제주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는 투쟁참가자들을 탄압하는 괴뢰당국을 규탄하여 11월 27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제주해군기지건설에 항의하는 강정마을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한다는 리유로 2010년부터 지금까지 650명이 련행되였으며 현재 200여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이고 부과된 벌금만 해도 수억원에 이른다고 까밝혔다.

얼마전 제주지방법원이 강정마을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가혹한 실형을 선고한것은 명백한 인권침해행위라고 단죄하였다.

《정부》가 투쟁참가자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구속자들을 석방해야 한다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쌀값보장을 위한 롱성투쟁을 선언

남조선의 통합진보당, 전국농민회총련맹, 전국녀성농민회총련합, 진보련대를 비롯한 정당, 시민사회단체성원들이 11월 28일 서울의 《국회》의사당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쌀값보장을 위한 농민들의 무기한롱성투쟁을 선언하였다.

그들은 농민들의 쌀값보장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아직도 쌀값을 결정하지 않고있다고 규탄하였다.

농민들의 목숨과도 같은 쌀값쟁취를 위해 《국회》를 대상으로 롱성투쟁을 벌려나갈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그들은 사회에서 농민이 무시되고있다고 하면서 농민이 주인된 사회를 위해, 농민의 요구조건실현을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괴뢰집권세력의 퇴진을 요구

남조선의 동학민족통일회, 천도교청년회 등 단체들로 구성된 《대선불법개입과 민생파탄을 규탄하는 천도교공동대책위원회》(천도교공동대책위원회)가 3일 괴뢰집권세력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선언문은 《정부》가 말로는 민생을 웨치고 재벌정책만 일삼아 서민의 삶이 벼랑끝으로 내몰리우고있다고 단죄하였다.

현 집권세력이 선거기간 그렇게 부르짖은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없어지고 권력기관의 수장들을 저들의 하수인으로 만들어 부정과 불평등을 심화시키고있다고 비난하였다.

특히 정보원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부정선거개입사건의 진상을 덮어버리려고 책동하면서 저들과 생각을 달리하거나 비판하는 국민과 종교인들을 《종북》세력으로 몰아 탄압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말끝마다 《깨끗한 선거》를 운운하던 박근혜가 사퇴를 요구하는 종교인들의 말을 《혼란과 분열》이라고 떠벌이고있다고 하면서 선언문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대통령》은 정보원 등 권력기관의 불법선거개입과 민생파탄에 대한 책임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특검을 통해 부정선거의 진상을 밝히고 주모자를 처벌해야 한다.

《정부》는 사회적약자와 정의를 위하여 발언하는 종교인들의 비판을 받아들이고 무분별한 《종북》몰이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

일본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무장장비배비책동

미국이 일본을 침략전쟁의 전초기지로 더욱 다지기 위해 주일미군기지들에 새로운 무장장비를 배비하는데 발광적으로 매여달리고있다.

1일 미해군의 첫 최신해상초계기 《P-8 포세이돈》이 일본에 도착하였다. 이 초계기는 일본본토의 서쪽수역에서 비행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한다.

미군은 이달안으로 6대의 초계기를 오끼나와에 있는 가데나 공군기지에 전개할것을 획책하고있다.

서방의 부당한 처사를 비난

이란외무성 대변인이 2일 TV 방송과의 회견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서방의 부당한 처사를 신랄히 비난하였다.

최근 유럽동맹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계속 유지할것이라는 결정을 채택한데 대해 언급하면서 그는 그것을 불공평하고 불순한 정치적목적을 위한것으로 락인하였다.

이란정부는 이러한 결정을 단호히 배격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여러 나라들 협조

중국과 남아프리카가 3일 두 나라사이의 정치, 경제관계를 강화할데 관한 량해각서를 채택하였다.

같은 날 에티오피아는 아디스아바바와 싱가포르를 련결하는 직통항로를 개설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캄보쟈에서 벼가을

파쑈제도수립을 노린 특정비밀보호법안성립놀음

일본정부가 세계의 불안과 우려를 자아내는 일들을 적지 않게 벌려놓고있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특정비밀보호법을 만들어내기 위한 책동이다. 이미 법안을 작성하여 내각각료회의에서 찬동을 받고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공개하였다. 특정비밀보호법안은 얼마전에 국회 중의원을 통과하였고 지금은 참의원에 넘겨져 심의과정에 있다.

그렇다면 일본정부가 무엇때문에 특정비밀보호법을 한사코 만들어내려 하고있는가 하는것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그것은 일제때와 같은 파쑈제도를 수립하기 위해서이다.

현 집권세력은 짝하면 자국의 《외교와 안전보장환경이 엄혹해지고있》다느니, 일본에 대한 《위협이 증대》되고있다느니 뭐니 하며 요란스레 떠들어대고있다. 그러면서 그에 대처하여 미국과 같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설치해야 하며 그를 운영하자면 자국의 외교와 안전보장, 사회질서유지 등에 관한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하지만 일본집권세력의 이러한 주장은 구실에 불과하다. 일본정부는 지금 어떻게 해서나 과거시대의 제도를 그대로 되살리려 하고있다.

파쑈제도의 특징은 형식적인 부르죠아민주주의의 가면마저 벗어던지고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군사독재하에 두고 해외침략에 복종시킨다는데 있다. 국우익적인 현 일본정부가 성립시키려 하는 특정비밀보호법안은 바로 강압적인 군사독재를 실시하고 해외팽창야망을 본격적으로 실현하기 위한데 목적을 둔 법안이다.

일본집권세력은 특정비밀보호법을 만들어내여 언론의 입에 더 큰 자갈을 물리고 광범한 근로대중을 군국주의의 희생물로 삼으려 하고있다.

특정비밀보호법안이 성립되게 되면 일본언론은 제구실을 하기가 더욱 힘들어지게 된다.

특정비밀보호법안에 따르면 《특정비밀》로 지정한 정보자료를 루설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들은 최고 10년이하의 징역형을 받을수 있다. 이 법안은 이미 전에 제정된 법들보다 매우 가혹한것으로 되고있다. 비밀을 루설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은 1년이하, 《자위대법》은 5년이하의 징역형을 들씌우게 되여있었다.

이로 하여 기자들의 취재활동은 커다란 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기자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정보자료를 얻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엄한 형벌을 받도록 법안은 규제하고있다.

문제는 특정비밀보호법안이 매우 모호하다는것이다.

어떤 자료가 특정비밀에 속하는가 하는 기준이 똑똑치 않다. 법안에는 각료 등 행정기관 책임자들이 일본의 안전보장에 지장을 줄수 있기때문에 특별히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정보자료들을 특정비밀로 지정하게 되여있다. 결국 법안은 법집행자들의 개인적판단에 따라 해당 자료들이 특정비밀로 될수 있는가 없는가가 규정되게 만들어놓았다.

이것은 비밀로 볼수 없는 자료들도 법집행자들의 주장에 따라 특정비밀로 될수 있다는것을 말해준다.

특정비밀을 바로 갈라보는가를 감독통제할수 있는 아무런 체계도 세워져있지 않다.

특정비밀보호법안이 성립되면 그 모호성으로 하여 앞으로 일본의 광범한 근로대중은 정부가 무엇을 목적으로 어떤것을 계획하고 언제 실현하려 하는가 등에 대해 제대로 알수 없게 된다.

일본의 전국각지에서 시민운동단체 등이 특정비밀보호법안의 국회채택을 반대해나서고있는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시민운동단체들은 미군전투기나 《자위대》전투기의 비행, 미군함선의 입출항에 대한 정보자료들을 얻고 주일미군기지들에서 전투기소음에 의한 피해실태를 조사하는것,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사고와 같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자료들을 장악하는것도 처벌대상으로 될수 있다고 하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현재 일본은 군국주의채찍을 휘두르며 맹렬히 질주하고있다. 일본집권세력은 근로대중을 아무런 반항도 없이 저들에게 맹목적으로 고분고분 순종하는 군국주의노예들로 만들려 하고있다.

일제시기에 바로 그러하였다. 일제는 우리 나라와 주변나라들을 침략하고 태평양전쟁을 도발하면서 그 계획작성과 실현방법 등에 대해 모두 극비에 붙였다. 당시 일본의 광범한 근로대중은 아무것도 모르고 일제의 침략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말하는 전쟁수단들로 되고말았다.

현 일본집권세력은 모든 권력을 국가행정기관에 집중시키고 폭압기구들의 권능을 더욱 높이려 하고있다.

특정비밀보호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경우 일반공무원들의 권리가 축소되는 반면에 사법기구들의 권한은 대폭 강화된다. 그렇게 되면 별치 않은 자료를 공개해도 일반공무원들은 법집행자들의 판단과 주장에 따라 죄인이 되여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국가행정기관들에 대한 국회의 감시기능이 약화되고 대신 《자위대》, 경찰과 같은 폭압기구들이 강화된다. 국회기능이 마비되여 머저리처럼 되는것은 이전시기 파쑈국가들에서 볼수 있었던 현상들이다. 이것은 3권분립을 기초로 삼고있는 서방식《민주주의》마저 우롱하는 파쑈적움직임이다.

일본의 한 정객은 미국보다도 일본의 특정비밀보호법안이 더 가혹하다고 주장하면서 현 정부가 《민주주의》의 기초와 기둥을 로골적으로 해치고있다고 주장하였다.

일본의 특정비밀보호법안채택시도는 군국주의세력이 권력을 자기 손에 확고히 틀어쥐고 해외팽창의 길로 거침없이 나갈수 있는 국내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놀음이다.

일본집권세력에게 정치리념이 있다면 군국주의이다. 현 일본집권세력은 어떻게 해서나 권력을 오랜 기간 유지하면서 군사대국화를 실현하여 일본을 재침의 길로 내몰려 하고있다. 이렇게 해야만이 일본의 심각한 정치경제적모순을 극복하고 존재유지와 번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수 있다고 타산하고있다.

지난 기간 일본의 많은 정권들은 단명으로 끝났다. 수십년간 유지해오던 자민당의 단독집권도 끝장났다. 자민당은 공명당과 같은 다른 당들과의 련합을 통해서 권력을 유지하고있다. 그만큼 정치적모순과 갈등은 심각하다.

국내경제형편도 좋지 못하다. 기업파산건수와 실업자들이 늘어나고있다. 사회적모순과 대립도 심화되고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독자적인 주견을 세우지 못하고있고 발라맞추는 외교를 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정치경제적위기는 더욱 심각해지고있다. 이로부터 일본집권세력은 미국을 등에 업고 군사대국화를 실현하여 해외팽창의 길로 나가는데서 출로를 찾고있다. 일본군국주의세력은 그 환경을 마련할수 있는 하나의 방도는 특정비밀보호법을 만들어내는데 있다고 타산하고있는것이다.

하기에 일본국민들과 정객들, 미국 언론들도 특정비밀보호법안성립놀음이 일본을 전쟁을 하는 나라로 전락시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비난하며 항의를 들이대고있다.

일본의 파쑈제도수립은 눈앞의 현실로 닥쳐왔다. 일본에서 파쑈제도가 수립되는 경우 동북아시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이 위험에 빠지게 된다.

세계는 일본에서 벌어지는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각성있게 대하고있다.

리 경 수

ㄱ-311914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